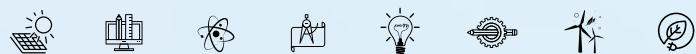


내일을 위한 생각! 이웃을 위한 생각!



함께하는 사회, 사람을 향한 기술!
나와 내 이웃이 함께 행복한 빛의 세상을
한국전력기술이 설계합니다.



 한국전력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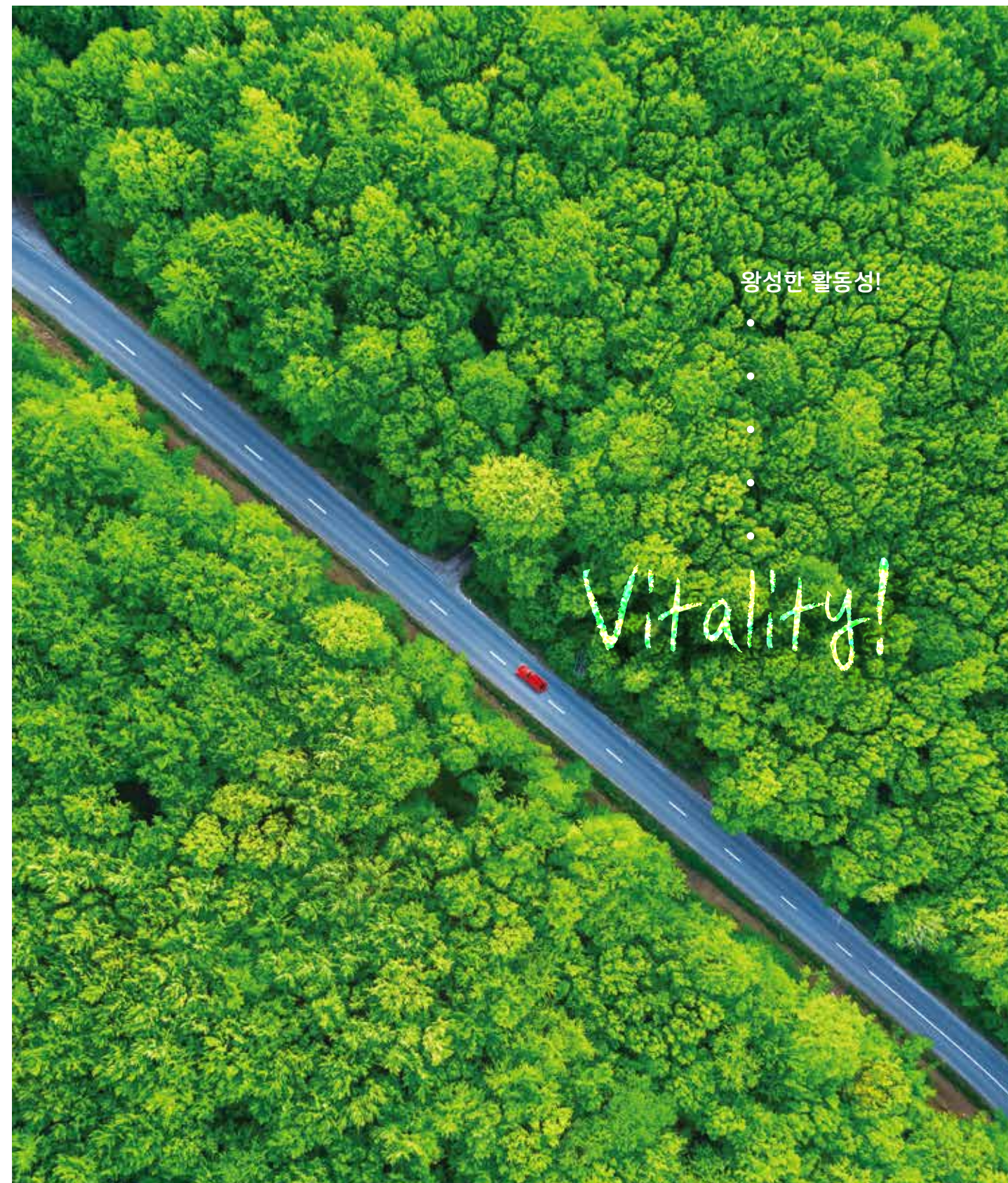


KEPCO

E&C
Engineering & Construction

Family

2022. 05+06



2022 05+06

KEPCO E&C Family



통권 470호 2022년 5,6월호(격월간)

발행인 김성암
발행일 2022년 5월 10일
발행처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등록일 1983년 7월 20일
주 소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69(울곡동)

전 화 054-421-3114
홈페이지 www.kepco-enc.com

이메일 miru@kepco-enc.com

인 쇄 화성에스지아이(054-773-7050)

04 Brief News

대구·경북 사이버보안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2022년 에너지신사업본부 멘토링 발대식 개최
용인 사옥 매매 계약체결
원전산업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원설단 추진전략 공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공존 및 新원전 정책 방향 세미나 개최
2021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우수’ 달성

06 4차산업

강한 AI, 약한 AI 어느 쪽이 진실일까?

08 에너지동향

떠오르는 원자력

10 한기인의 메아리

가족이 함께한 이야기

12 이달의 한기인

정기수 부장

14 슬기로운 회사생활

인생은 풀고 엮음의 반복 _자연을 엮는 라탄공예

18 맛집탐방

META1976

20 직원 참여 마당

오길 잘했다. 정말

21 이 달의 한컷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22 지역탐방

김천천환경생태공원 온실, 사명대사공원 건강문화원

24 갈등관리와 소통

갈등 앞에서 유연함만이 원원을 이끈다

26 문학순례

흐뭇한 달빛의 이효석 문학관

30 머니머니

부동산 투자의 조건

32 Shall We Meet?

울곡성당 요한신부

36 Culture

솔라리스 : 불가해의 바다

38 지역상생

장애인 일자리 창출 네일케어 사업 ‘섬섬옥수’

40 나들이

서문 시장, 청라언덕, 계산성당

42 문화소식

도서 <매력자본> 외

44 가정방문

시골집을 찾아서

46 Editor's Letter

독자의견 등

비밀은 가만히 앉아

우리는 원을 그리며 춤추고
짐작하지만 비밀은 원 가운데
가만히 앉아 알고 있다.

- 로버트 프로스트



KEPCO E&C N e w s

대구·경북 사이버보안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국가정보원과 함께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협력하여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김천 본사에서 대구·경북지역 국가·공공기관 사이버보안 담당자의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날로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길 희망하는 국가·공공기관 사이버보안 분야 종사자들의 교육 열망을 반영, 국가정보원 주도로 기획되었다. 이번 교육은 우리회사가 최초로 국정원, 국보연과 공동으로 지역 사이버보안 담당자 대상 실무 중심의 맞춤형 직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각 기관의 사이버보안 수준 동반 성장과 더불어 사이버보안 담당자간 상호 협력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회사는 최근 국정원 및 경북도내 원자력 유관기관과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앞으로도 국정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원전 사이버안전 제고와 국가 사이버 안보 강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2022년 에너지신사업본부 멘토링 발대식 개최

에너지신사업본부는 3월 8일 2022년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개시와 함께 멘토링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경험 인력의 체계적인 기술전수, 멘토링 활동을 통한 수직적·수평적 소통을 활성화함으로써 활기찬 조직문화 형성, 중간관리자 경험 기회 제공 및 리더십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에너지신사업본부는 멘토 1인과 멘토 2인으로 구성된 26개팀(78명)이 참여하였고, 발대식은 멘토링 프로그램 설명, 대표 멘토·멘티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 본부장 격려사 등으로 진행되었다. 김동규 본부장은 “멘토링을 통해 엔지니어링 기술전수와 더불어 경험인력과 중간관리자간 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조직문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에너지신사업본부는 멘토링 프로그램과 함께 간담회 운영, 스터디그룹 운영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역량과 공감대 형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용인 사옥 매매 계약체결

회사는 4월 13일 부동산투자전문 자산운용사인 블루코브 3호와 “용인사옥”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각자산인 용인사옥은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54에 위치한 토지 8,924m²(2,700평)/건물 45,180m²(13,667평)/지하3층, 지상9층 규모이다. 회사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2015년 8월 김천으로 이전하였으며, 종전부동산인 용인 사옥을 매각 처분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총 22차례 공매를 실시하였다. 공매는 입찰 참가자가 없는 상태로 계속 유찰되었으며, 2018년 5월 용인 사옥 주변 “플랫폼시티개발”이 이뤄지는 등 부지 주변 부동산 시장 변화가 감지되어 회사는 매각 진행을 잠정 중단하였다. 회사는 작년 12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매각 처분을 결정하고 매각 입찰을 재개하였으며, 올해 낙찰자 선정에 성공하였다. 이번 공매는 최고가 낙찰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4개사가 참여하였다. 계약금액은 987억원(부가세 포함)으로 대금은 3년 분할납부방식이다.



국가정보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함께 대구·경북 사이버보안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2022년 에너지신사업본부 멘토링 발대식 개최



용인 사옥 매매 계약체결



원전산업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원설단 추진전략 공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공존 및 新원전 정책 방향 세미나 개최

원전산업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원설단 추진전략 공유

4월 14일 ‘원전산업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원자로설계개발단 추진전략 공유 직원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는 하재홍 원자로설계개발단장을 비롯한 사업부서 및 설계부서 직원들 200여명이 참석하여 원전산업 환경변화와 이를 위한 점검사항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회사는 이번 직원설명회를 통해 대내외 원자력분야 환경변화, 중장기 매출 및 인력 계획, 고유 기술력 향상 방안 등에 대한 직원간 비전 공유 뿐 아니라 질의응답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하재홍 단장은 “대내외 정책변화로 사업 활성화와 이에 따른 업무 증가가 예상되는 바, 적극적 자세로 이를 대비하자”고 말했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공존 및 新원전 정책 방향 세미나 개최

4월 20일 1층 국제세미나실에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공존 그리고 新원전 정책 방향에 관한 외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향후 국가 원자력정책 방향과 에너지 믹스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시각을 공유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연학기 전력기술원장을 비롯한 직원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노동석 박사는 “차기 정부의 대선공약과 新원전정책은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활용한 탄소중립 달성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침체된 원전사업 활성화를 통해 원만하게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공유된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회사 위상제고와 새로운 발전방향 설정에 참고할 계획이다.

2021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우수’ 달성

회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운영하는 2021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는 공공기관이 국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동반성장 노력을 통해 상생문화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매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회사는 어려운 사업 환경속에서도 기관 자체적인 동반성장 비전과 그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 대상 에너지효율화 사업, 성과공유 및 협력이익공유 사업, 해외 동반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하며 기업성장의 기반 마련을 지원하였다. 또한, 기술개발 전주기 지원으로 협력 R&D사업과 소부장 국산화, 기술보호 사업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실제 활동 및 성과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이며 2020년 ‘양호’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한 ‘우수’등급을 획득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및 지역과의 선도적이고 다양한 동반성장사업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하여 상생문화 확산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C**

강한 AI, 약한 AI 어느 쪽이 진실일까?

인공지능에게 “오늘 기분이 좀 어떨니?” 물었더니

“아침부터 기분이 울적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 날이네요”라고 답하였다.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 지각을 가진 생명체 같다고 느끼는 사람도, 반대로 몸과 감정 없이

어떻게 그런 욕구를 느낄 수 있는가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



챗봇 AI는 인간이 나누는 대화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딥러닝 과정을 거쳐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끌어 내려고 만들었다. 그러나 아마존, 구글, 삼성, SK에서 내놓은 AI 스피커는 대부분 실내 장식품이 되고 말았다.

인공지능에서 ‘디지털 영생’은 조금 이상하게 들린다. 자신의 모든 정보, 기억, 생체 데이터를 디지털로 전환하여 서버에 옮겨 축적하면 사후 연속하는 ‘나’가 살아남아 존재를 이어 간다는 발상이다. 그런데 몸과 뇌 없이도 동일한 자아가 형성될 수 있을까? 감정과 마음 없이 순수한 사고만 하는 생명체가 가능할까. 디지털 영생을 꿈꾸는 배경에는 인간의 모든 경험, 기억, 생각을 컴퓨팅(computing)할 수 있다는 믿음이 숨어있다.

인공지능에는 ‘강한 AI(strong or hard)’와 ‘약한 AI(weak or soft)’가 있다. 강한 AI는 인간의 감각, 인지, 생각, 지능을 그대로 시뮬레이션하는 게 가능하다고 믿는 쪽이다. 이는 대단한 낙관주의를 반영한다. 반대로 약한 AI는 인간이 가진 지각, 의식, 마음은 본질적으로 비컴퓨팅 영역으로 AI는 제한적 영역에서만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는 AI 능력을 좁게(narrowly) 보는 비관주의를 내포한다.

사회에서 강한 AI가 지배적 담론으로 자리 잡는 이유는 언론매체와 IT 기업의 과대 홍보 탓도 있고, 대개 미래는 장밋빛으로 그런 상상을 해야 재미도 있다. 그래서 SF 영화와 소설도 강한 AI만 다룬다. 필자는 약한 AI를 더 신뢰하고 지지하는 편이다. 인간의 자아는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감정과 생각이 전개된다. 그런데 몸과 의식 없는 인공지능은 ‘나’라는 주체가 처음부터 없다. 알파고는 바둑을 두고 있지만 바둑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다. 주어진 계산만을 부지런히 수행한다. 주체 의식이 없으니 당연히 의미론(semantic)도 성립하지 않는다. “기분이 울적해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 이는 여러 대화의 경우 수 중에서 활용 빈도 높은 패턴 하나를 인공지능이 골라 그냥 읽어 준 것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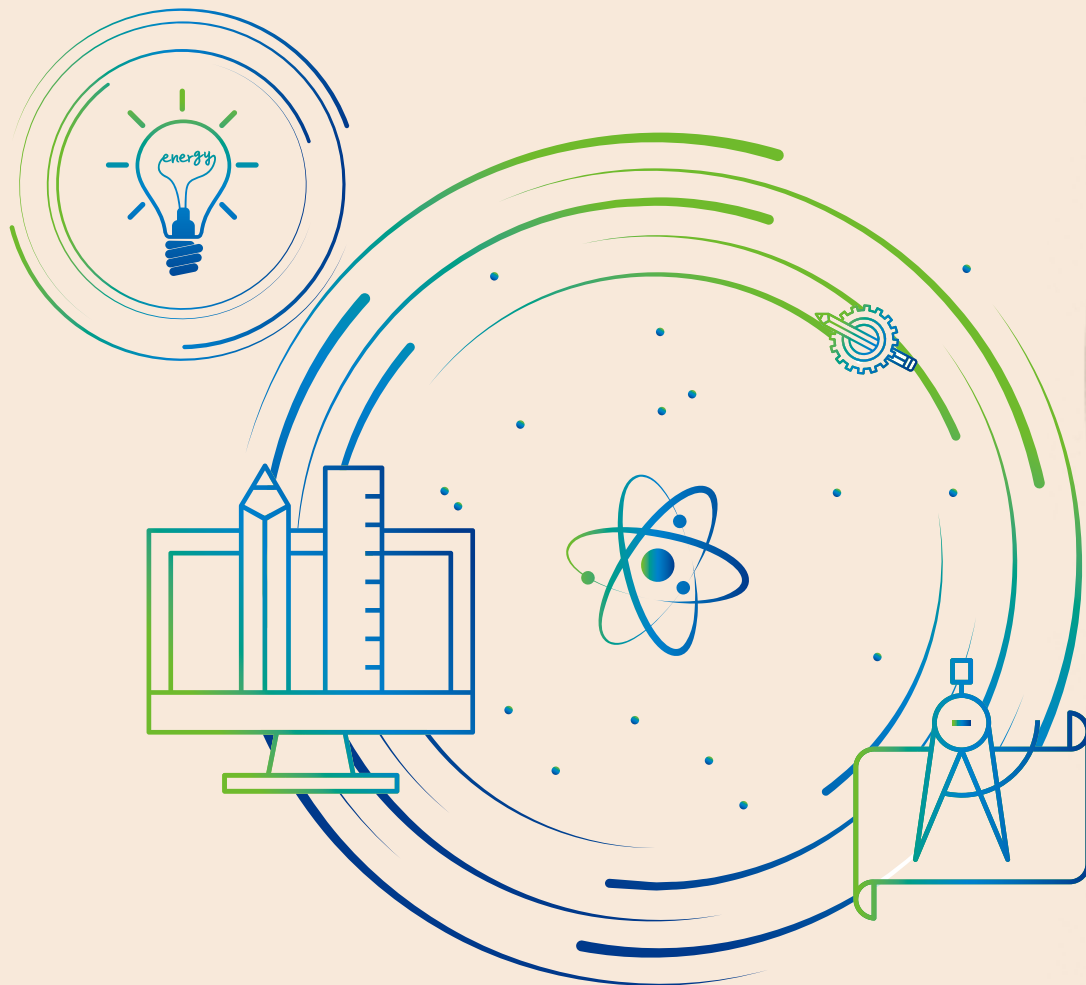
마음이란 광대역이지만 특정한 정보, 지식, 지능 등의 요소는 코드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정확한 명칭이 없어 컴퓨팅-시뮬레이션-알고리즘-코드화로 나열해 보았다. 간단히 말하면 ‘수학적 해(解)’가 있는 공식이다. 달리 카오스 복잡계, 자연언어처리, 매개변수가 많으면 시로 구현하기 무척 어렵다. 태풍의 진로, 주식 미래가치, 암 진단과 치료 등이 이런 예들이다. 이미 1990년대 체스와 바둑은 그 룰과 매개변수, 승률 가산치 등의 수학적 계산이 그다지 복잡하지 않아 곧 시로 구현되리라 예상하였다. 비록 그걸 실현하는데도 20년 세월이 흘렀지만.

강한 AI가 성공하려면 새로운 물리학과 수학이 나와야 할 것 같다. 또 대뇌 메카니즘, 인지과학, 인식론 등의 주변 성과가 나와야 이를 참조하여 미지의 알고리즘을 짤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인간처럼 생각하는 AI가 출현할까? 강아지, 참새, 돌고래, 인간 등의 생명은 모두 ‘나’라는 존재 의식을 가지고 있다. 비 생명체에서 의식이 출현한다는 증거는 없다. 수 십만 줄로 구성된 프로그래밍 어디에도 ‘스스로’라는 자발성을 찾을 수 없다. **E&C**

떠오르는 원자력

살면서 '원자력 르네상스' 용어를 꽤 접했다. 미국 정부도 원자력 부흥 정책을 간혹 발표했다.

2006년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와 반도체 제조로 성공한 도시바 그룹이 원전 핵심기술을 보유한 웨스팅하우스를 6조원에 인수한다는 뉴스는 충격적이었다. 당시 BWR을 보유한 일본이 PWR까지 손에 넣으면 양대 진영을 아울러 세계 원자력산업을 주도할 것이라는 보도가 뒤따랐다. 황금알을 낳을 것 같은 거위는 계륜으로 바뀌고 도시바는 내상을 입었다. 시간이 흘러 조금씩 이유가 밝혀졌다. 미국에 건설하는 원전 4기의 공사지연과 이에 따른 손실이 눈더미처럼 불어났는데 이미 공급망이 붕괴되어 원전건설과 기기제작 복원이 쉽지 않았다.



프랑스와 독일의 원자력 모델 중 어느 쪽이 맞는지 궁금했다. 시간만이 정답을 조금 보여줄 문제였다. 독일은 일찍 원자력의 단계적 폐지(phase out) 정책을 확고히 했다. 원자로는 서서히 폐쇄하고 풍력과 태양력 비중을 매년 올린다는 열개이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바람이 불지 않고 흐린 날이 몇 달 지속되면 부족한 전기를 생산하려고 폐쇄한 화력 발전소까지 가동하고 모자란 전기는 수입도 했다. 이 때문에 친환경 명예에도 금이 갔다. 또 독일은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와 석유를 의존하니 진퇴양난의 형국이다. 독일은 어떻게 에너지 문제를 타개해 나갈지 고민이 적지 않다.

친환경과 탈원전은 지구촌의 진보 논리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이런 추세 굳히기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아직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는 조작된 정보라고 믿는 사람이 많지만 탄소배출과의 인과는 부정하기 어렵다. 10년 전부터 친환경 노선에도 미세한 균열이 일어나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원자력이 대안이라는 생각이 조금씩 나타났다.

2021년부터 상호의존적 강결합 시스템은 국지적 변화나 마비가 일어나면 연쇄작용을 일으켜 공급붕괴를 초래한다는 사실이 목격되었다. 반도체, 신발, 섬유, 석유, 구리 등 대상을 가리지 않는 물류대란은 올해까지 이어질 태세다. 미국은 세계화의 종말을 선언하고 이를 탈세계화(degloabalization)로 이름 지었다. 이제 에너지는 블록화되든지 각자도생이다. 앞으로 석유, 천연가스, 태양력과 풍력, 원자력 에너지 등을 균형과 최적 비율로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3월 하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새로 FAANG 2.0 전망을 공개하였다. 약어를 살펴보면 Fuels Aerospace Agriculture Nuclear Gold & Metals이다. 처음 눈을 의심했는데 원자력 'N'이 떠오르는 미래산업으로 나올지 몰랐다. 연이어 영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 전략상 신규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덩달아 중국도 원자력 비중을 37%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내어놓았다. 미래는 에너지, 식량, 자원 확보가 관건이다.

소형 모듈형 원자로 개발은 획기적 핵연료 개념을 처음 소개한 남아프리카의 PBMR 소식 이후 잠잠하다. 이 분야에서 빌 게이츠도 계획을 내어 놓은 적 있다. 또 국내 SK그룹이 차세대 원전 벤처기업 테라파워에 투자할 의향이라 한다. 일본은 갑작스레 정부 차원에서 차세대 소형원자로 개발에 본격 나선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상업용 SMR 개발은 아직 진정성을 짐작하기 어렵다.

핵융합은 발현 차원에서 연구 중이지만 냉각기술과 제어계측 등의 난제가 많아 갈 길이 먼 것 같이 보인다. 지금은 아무래도 억눌려 왔던 상업용 원전이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수면으로 떠 오르려다가 물 밑으로 다시 가라앉은 세월이 얼마나 반복되었는가. 이번에는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고 참았던 호흡을 내실지 기대해 본다. **EXC**



설문조사

가족이 함께한 이야기

사회적 거리두기로 점차 사람들과의 소통이 줄어들고 있지만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늘어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었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편하게 그 자리에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쉽게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쉽게 마음이 풀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당연함 때문에

가족의 소중함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가정의 달 특집으로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보고자 합니다.

한기 동료들 이야기를 읽으면서

지금 바로 가족에게 연락해 안부를 묻는건
어떨까요?



1. 가족들과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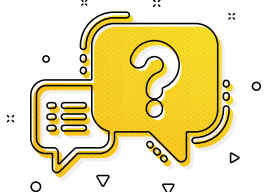


■ 한강 자전거 라이딩 하던 때입니다. 출지도 덥지도 않은 어느 봄날, 뒤서거나 앞서거나 하면서 라이딩 하던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발 자전거를 떼고 이제 막 두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 딸과 의젓하게 두발 자전거쯤이야 하고 으스대는 아들, 그리고 우리 부부가 나란히 자전거 탈 수 있다는 것이 소소하지만 행복한 추억입니다. 지방 이전으로 주말 시간을 의미 깊게 보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한번 정도 계속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추억을 쌓자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쌓여 훗날 아이들에게도 좋은 추억이 되길 희망합니다.

이동진 과장 (전력기술원 스마트융합실)

■ 2017년, 가족들과 함께 일본 여행 간 것이 떠오릅니다. 제가 어릴 적 부모님이 항상 여행계획을 세우셨습니다. 2017년 다녀온 여행은 부모님 손을 잡고 따라다니던 어린 소년이 어른이 되어 처음으로 여행계획을 세워 부모님을 모시고 다녀온 첫 번째 여행이었습니다. 그 여행에서 부모님께서도 매우 좋아하셨고 저 또한 그 계기로 부모님께 든든한 자식이 된 거 같아 뜻 깊었습니다. 기회 된다면 다시 한번 부모님 모시고 국내든 해외든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박준우 사원 (전기계측기술실)



2. 부모님(자녀들)과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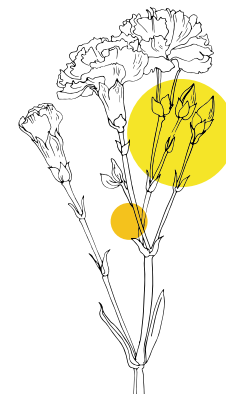


■ 사진관에 가서 가족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예전에 찍은 가족사진이 있습니다. 당시 사진을 찍기 위해 가장 좋은 옷으로 한껏 치장한 가족들이 멋지게 나온 그 사진은 이제 20년도 훌쩍 넘어 색이 바랬네요. 철부지 아이였던 제가 이제 다 큰 어른이 되어 부모님을 모시고 사진관에 가서 다시 멋진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박준우 사원 (전기계측기술실)

■ 단연 여행일 것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작은 섬에 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자식, 3대가 할 수 있는 여행이라면 더욱 좋겠지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외국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울릉도나 제주도는 어떨까 하고 조금씩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모님 연세를 생각해야 하기에 느린 산책 하듯 여행 한다면 더욱 기억에 남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마친 뒤 우리 가족만의 여행앨범을 추억으로 만들어 공유하고 싶습니다. 짧은 시간의 여행이지만, 한 권의 여행앨범을 만든다면 가족이 모여 사진 보고 왁자지껄 웃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동진 과장 (전력기술원 스마트융합실)



3. 가족이 보고 싶은 순간은 언제였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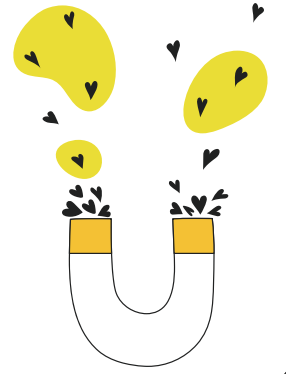


■ 바로 이 순간 아닐까요? 누군가 가족을 묻고, 가족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그때가 가장 가족이 보고 싶은 순간입니다. 그리고 업무로 인해 파견이나 출장을 가게 되면 더욱 가족이 생각납니다.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때론 걱정할까 봐 공유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서로의 자리에서 믿고 노력하다 보면 문득 가족이 보고 싶어집니다. 핸드폰을 통해 영상통화도 할 수 있는 시대이지만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핸드폰 갤러리에 정리되지 않는 사진을 보곤 합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견디다 보면 그 시간을 지나 가족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이동진 과장 (전력기술원 스마트융합실)

■ 눈이 오는 날, 부모님이 가장 보고 싶습니다. 작년 부모님께서 다리가 불편하셔서 수술받으셨습니다. 눈이 오는 날, 행여나 미끄러지지지는 않으실까, 혹시 집 앞 눈을 치울 때 힘들지는 않으실까 많이 걱정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오늘 저녁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이라도 드려야겠습니다.

박준우 사원 (전기계측기술실)





2021년 전기안전관리 유공 수상

정기수 부장



고향을 물었더니, 청주 대전 신탄진 좀 애매하게 답변한다. 사연을 들어보니 청원 후곡리에서 자랐다. 대청댐 수몰 마을 중 하나이다. 용흥초등학교 6학년 올라갈 무렵 마을과 학교는 물밑으로 사라졌다. 기억의 공간이 없어진 마음을 생각해 보았다. 정기수 부장이 영흥 발전소에 전기 받으러(受電) 출장 갈 때 새벽이었다. 화성 해안도로는 살짝 살얼음이 내렸다. 차가 미끌어져 하마터면 언덕 아래 굴러떨어질 뻔하였다. 그래도 전기쟁이는 자신이 설계한 송수전 기기에서 싱크로가 정상 작동하는 순간 보람을 느낀다.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차단기(CB)가 활성화될 때 쏘는 쾌감이라 한다.

2012년 무렵 태안 IGCC(석탄가스화 복합발전)을 맡을 때 정 부장은 총 11개 프로젝트를 동시 진행해야 했다. IGCC는 새로운 개척 분야로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오전에는 용인본

사, 오후에는 오리별관을 시계추처럼 오고 갔다. 플랜트 엔지니어링은 업무 분량과 강도가 심한 편이다. “바쁘면 주말에 나와 열심히 일하면 주중에는 휴가분해져 업무처리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지만 행간을 뜯어보면 조금 가슴 아프다. 묵묵히 맡은 바 일을 하면 주위 간섭도 받지 않지만 또 그걸 알아 주는 사람도 없다는 현실 같은 것. 전문분야를 물었더니 GIS(가스 절연 스위치) 쪽이라 한다. 제주 LNG 복합 전기분야 책임자, 신서천 분야 책임자이다. 열심히 단락전류, 여자기 응답 비율, 변압기 설치 등의 계산을 한다.

여가 나면 정 부장은 보은 저수지를 돌면서 낚시도 하고, 때로는 배드민턴 라켓으로 셔틀콧을 공중에 내리꽂는다. 머릿속 복잡한 일이 토크 부하를 일으키면 떡밥도 끼우고 쏜살같이 날아가는 셔틀콧의 수하(垂下)특성 곡선을 보면서 잇는다. 좋아하는 음식은 칼국수라고 한다. 대전, 청주, 공주는 칼국수 집이 유난히 많다. 왜 그런지 설이 분분하지만 비지락, 부추, 호박채 넣고 끓인 칼국수가 먹고 싶다.

2021년으로 24회째를 맞는 전기안전관리 포상은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에너지 안전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상 중 하나이다. 이 상은 전기 재해 예방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한 이들을 격려하고 국민안심 사회에 대한 염원을 담아 만들어졌다. 이런 영예를 우리회사 정기수 부장이 수상하였다는 소식에 찾아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국내 최초로 건설한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소는 특성이 복잡하고 설계도 어렵다. 정 부장은 전력계통 신뢰성 진단 및 설비를 개선하여 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작년 12월 산자부 장관상을 포상 받았다. 인천국제공항 전력계통 분석에도 기여하고 무엇보다 800MW급 발전소 표준화 설계에 참여한 보람이 크다.

정 부장은 일하면서 관련 업체 직원들도 눈여겨보았다. “대리나 과장급 정도인데도 여러 분야를 잘 알고 책임감도 있어요. 우리 직원에게 ‘닥공’을 언급하는 편입니다. 나중 경력 쌓이면 직급이 올라가는데 그러기 전 산전수 전 겪어 보아야 엔지니어 판단도 생기고 후배에게 방향도 알려 주고 자기 역할도 합니다. 그런 경험이 없다면 뭘 할 수 있겠어요?” 회사 규모가 크고 부서가 많아지면 업무 폭은 좁아진다. 그의 말을 해석해 보면, 공학 공식에서 상수 K는 어쩔 수 없지만 변수는 조절 가능하다. 모르는 분야를 소화하는 쪽은 임피던스 Z를 낮추어 역률을 좋게 한다. 경험치를 높여라!

소중히 여기는 책 한 권 소개해 달라고 하였더니 “그게 무엇이더라. 프랑스인이 쓴 것 같은데.....” 그만 회로 방전이 일어나 기억이 지락되었다. “포탈 메일로 알려 드릴게요” 그렇게 인터뷰는 종료되었다. 메일로 ‘꾸뻔 씨의 행복 여행’ 제목이 배달되었다. 아래 문구를 사랑해서 직원에게도 늘 알려준다고 한다. 아마도 책의 선정 사유인 듯하다. “여행의 궁극적 목적지는 행복이다.” **E&C**

복 여행’ 제목이 배달되었다. 아래 문구를 사랑해서 직원에게도 늘 알려준다고 한다. 아마도 책의 선정 사유인 듯하다. “여행의 궁극적 목적지는 행복이다.” **E&C**



인생은 풀고 엮음의 반복 — 자연을 엮는 라탄공예



혁신도시 울곡유치원 인근에는 공방 골목이 있다. 도자기, 회화, 가죽공예 등 공방들이 한 골목에 모여 있다. 지난번 도자기 체험에 이어 오늘도 열정 넘치는 한기인들은 라탄 공예에 도전한다. 공방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과 향초가 만들어내는 진한 향기가 우리를 반긴다. 공방 안에는 전구 갓부터 시작해서 의자까지 모두 라탄공예 작품들로 준비하다.

먼저 선생님이 각자의 자리로 안내해준다. 오늘의 과제는 라탄 무드등 만들기. 라탄 공예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집에 한 개씩 가지고 있는 'Must it' 아이템이라고 한다. 모두 자리에 앉아 선생님의 설명에 귀를 기울인다. 먼저 라탄 공예 역사강의. 주로 라탄 공예는 일본에서 시작되어 들어왔지만, 한국의 죽공예와 접목하여 대나무 쪼개는 것부터 시작하는 죽공예의 진입장벽을 낮추었다고 한다. 확실히 공방을 둘러보니 채반이나 소쿠리 등 죽공예로 만든 작품과 유사한 것이 많이 눈에 띈다. 재료는 인도네시아산 라탄을 최고로 치는데, 한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공장을 운영하며 재료를 공급 중이라고 하니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가 융합한 그야말로 글로벌 공예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라탄공예를 시작해본다. 호리병같이 생긴 무드등 본체에 라탄을 감아 나간다. 하지만 빈틈없이 단단히 엮기가 다들 쉽지 않은 모양이다. 작업이 어느 정도 손에 잡히자 부장님이 입을 연다. 복잡한 세상에서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것을 하다 보니 뭔가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다고 한다. 그리고 시작되는 부장님의 농담에 공방 안에는 하하 호호 웃음꽃이 핀다. 그리고 한 30분 정도 지났을까? 하나둘 작품을 손에서 놓고 잠시 먼 산을 바라본다. 단순 작업이지만 집중하는데 쉽지 않은 듯하다. 이에 선생님은 쉬엄쉬엄하라고 하며 오전과 오후가 다르고 작업에 따라 각자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고 한다. 한전기술 직원들은 역시 집중력이 좋아 이해와 작업속도가 빠르다는 립서비스는 덤으로 얹어준다.

부장님이 갑자기 맘에 안 드는 듯 몇 줄을 쪽 풀어버린다. 사람이 손으로 하는 작업이라 조금씩 주는 힘이 달라지기도 하고, 라탄이 자연 재료라 같은 재료라도 색깔 차이가 나기도 한다. 한 동안 공들인 작업을 풀어버리면서도 '인생은 풀고 엮음의 반복'이라는 명언을 남겨 또다시 다들 한바탕 웃는다.

라탄을 한줄 한줄 엮다 보니 그 매력에 빠져들어 관심이 생긴다. 이것저것 만들어보고 싶은 모양이다. 주변에 장식된 공예품을 가리키며 이건 언제 배울 수 있어요? 완성하려면 얼마나 걸려요? 라고 묻는다.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은 0이 하나 더 붙어있다. 이건 100시간 저건 300시간. 그런데도 다들 눈빛은 배워보고 싶다는 기대감이 한 가득이다. 그리고 완성된 무드등 지금부터는 포토타임! 오늘 체험도 무사히 끝을 맺는다.



이태용 부장

원데이 클래스라는 우연히 홍보팀에서 올려 준 게시를 보고 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시니어 A라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교육 중 가능한 모든 것에 참여 하려고 마음먹고 있던 참이었기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원데이클래스의 주제는 Lara's craft라는 등공예 공방에서 등공예 작품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등공예 자재는 약 5년 정도 된 자재를 수입해와서 등공예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약한 시간 반 정도 정신을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고, 손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기회로 머리가 복잡한 상황에서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서 좋았습니다. 회사 홍보실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회사 주변에 우리 회사도 알리고, 자기 잠재력을 확인하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기회를 제공한 회사에 감사드립니다.



강예지 사원

평소 공예에 관심이 있었지만 시작하기가 상당히 막막하여 미루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통해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고 너무 즐겁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한땀 한땀 집중을 하니 평소 가지고 있던 잡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이래서 취미생활이 필요하구나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집과 회사만을 반복하는 무료한 일상 속 오랜만에 큰 흥미를 느끼는 일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내가 만든 결과물을 집에 두고 바라보면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Rattan Arts industriels



박훈이 사원

라탄공예는 예전 TV 프로그램에서 보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내 게시판을 보고 신청하게 되었고, 결원이 발생하는 바람에 운이 좋게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라탄공예에 대해 간단히 설명 해주셨는데 그마저도 흥미로웠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 무엇보다 즐거웠습니다. 만드는 법을 터득하고 한줄 한줄 엮어 나갈수록 복잡한 생각이 사라지면서 걱정하는 것들이 모두 괜찮아지는 듯한 마법 같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작품은 자꾸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비주얼이라 볼 때마다 뿌듯함과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번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 업무상 마주할 일이 없는 직원분들과 새로 이야기 나누는 것도 즐거웠고, 전부터 해보고 싶었지만 혼자서는 자신이 없어 도전하지 못했던 활동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음에도 생각보다 더 취향 저격이라 개인적으로 클래스를 등록할 생각입니다.



라라스크래프트

주소 : 김천시 용전4로 1길 16 1층
라라스크래프트는 취미반과 실전반,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품판매 및 일일 체험도 가능합니다.

베이커리 카페 META1976



추풍령에서 어둠을 뚫고 김천으로 내려가는 경부고속도로, 김천IC를 지나면 환한 빛무리가 신기루처럼 나타난다. 멀리서 보면 불 켜진 거대온실 같다. 일렁이는 불꽃을 본 나방은 뛰어들어 자신을 산화하고픈 충동에 빠진다. 조각공원 가는 길, 70여 미터 메타세쿼이아 길을 지난다. 하늘 높이 자란 나무는 대각선 구도를 펼쳐 중앙 소실점으로 빨려들게 한다. 그 끝에 META1976 베이커리 카페가 나온다. 스페인어로 이런 집을 까사 블랑카(하얀 집)라 부른다. META는 가로수에서 1976 숫자는 주인이 태어난 해이다.



시냇물 흐르는 징검다리 포토존을 지나 천장 높은 실내로 들어가면 사방이 흰하게 트였다. 중간층 다락을 포함하면 3층이고 넓게 보면 2층이다. 바게트 치아바타 페스츰리 파니니 빵과 음료를 선택하여 2층 창가로 갔다. 식감이 좋고 씹을수록 고소하다. 빵이 포근하면서 은근한 냄새에 취하면 행복해진다. 25년 경력 김홍식 셰프에게 물었더니 밀가루, 효모종, 버터 3박자 힘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버터 종류도 고메와 앵커가 있는데 500g에 9,800원 고급품을 사용하기에 풍미가 한결 좋다. “신선 재료를 가족이 12시간 내 먹는다는 심정으로 만들어요”가 그의 컨셉트이다. 유기농 호밀빵, 에멘탈 빵, 김천 호두빵이 자신있다고 추천한다.

제빵업계에는 부산, 군산, 목포, 제주 지역 강호가 많다. 관광객으로 북적이고 전통의 대표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성심당 빵을 좋아한다. 매년 새로운 개념의 빵을 내놓는다. 김 셰프는 부산 고려당, BNC 그리고 서울 레베도르 제과점을 두루 걸쳤다. “김천에서 건강을 위해 무색소, 무방부제 원칙으로 지역농산물을 넣어 계속 레시피 개발 중입니다” 카페는 주말에는 젊은 세대, 평일에는 중장년층이 즐겨 찾는다. 연중무휴 10-10으로, 오전 10시~오후 10시까지 문을 연다.

한 끼 1인당 60만원, 프랑스 정찬을 먹어 본 적이 있다. 메인요리를 제외하고 나오는 빵, 버터, 치즈, 햄, 잼, 과일 구성은 여타 식당과 비슷했다. 그러나 이들이 마트나 다른 레스토랑에서 흔히 접하는 맛은 아니었다. 그 맛이 순수하고 고결하게 느껴졌다. 빵도 그렇지 않을까? 빵에는 호밀 계란 소금 효모 등 다양한 재료가 들어간다. 일본 빵 명장이 똑같은 레시피로 한국에서 빵을 만들었지만 일본과 다른 맛이 났다. 고민 끝에 원인을 찾았다. 한국은 갈색 계란, 일본은 흰 계란을 제빵에 사용한다. 갈색 달걀은 비린 맛이 강하다. 사실 햄버거 맛도 빵(bun)이 좌우할 때가 많다.

META1976에서 아홉 가지 빵을 맛보았다. 무화과 치즈 바질 햄 초콜릿 토마토의 토핑보다는 빵 본연의 맛을 내는지 포인트로 삼았다. 겉은 살짝 바삭하고 안은 촉촉하고 부드러우면서 끝이 고소해야 한다. 결과는 만족스럽다. 김 셰프 설명대로 고급 밀가루와 버터를 쓰기 때문일까? 올해부터 소금빵이 유명해졌다. 샤인머스켓과 소금빵은 일본에서 얼른 업어 온 품목이다. 소금빵은 시코쿠 에히미면 작은 어촌 빵 가게에서 시작했다. 겉에는 굵은 소금, 밀가루 반죽에 버터를 혼합한 것이 일반적이다. 짭조름한 소금과 느끼한 버터지방의 묘한 조화다. 블랙커피와 함께 조금 싱겁고 은은하게 고소한 맛을 선호하는 분이면 좋아하리라.



건축과 인테리어는 헤밍웨이 ‘깨끗하고 밝은 곳’ 수필을 떠올리게 한다. 제임스 조이스가 20세기 최고 산문이라 칭송한 글이다. 흰색을 배경으로 따뜻한 빛의 백열전등이 물방울 떨어지듯 걸렸다. 층고가 높으니까 사면은 유리이다. 오픈한 지 6개월이라 실내식물은 아직 풍성해 보이지 않는다. 유리라는 재질은 묘한 심리적 효과를 일으킨다. 안팎(Within and Without)은 물리적으로 차단되었지만 시각적으로는 연결되어있다. 도피와 은신, 차안과 피안이란 구도를 만든다. 그래서 누구나 테라스 온실로 파고라를 꾸미고 싶은 꿈을 꾀다. 카페는 그런 공간을 제공한다. 밤이면 카페는 밝고 깨끗하게 빛나 환영처럼 사람을 유혹한다. E&C

오길 잘했다. 정말 - 울산바위의 별무리



주기훈 토목환경기술실 대리 / 캐논 EOS R

퇴근길 하늘이 좋길래 강원도로 달렸다.

출발 직전까지 '피곤한데 실까?' 수만 번 고민했다. 하지만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울산바위는 아름다움을 넘어 경이롭기까지 했고, 무수한 별들은 칠흠같은 어둠 속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그렇게 설렘으로 가득 찬 하룻밤을 보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고민을 한다. 그중에는 고민만 하다가 끝나는 일들이 너무 많다.

가끔은 큰 고민 없이, 마음 가는 대로 해 보자. 생각지도 못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직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사보에 소개된 분께 원고료를 제공합니다.

멋지게 원전용기를 설명하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2022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이 4월 27일~29일 벅스코 컨벤션 홀에서 열렸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기자재구매, 수출 및 취업 상담까지 결들여졌다. 프레젠테터, 관광 가이드, 전시 요원은 '설명과 이해'라는 같은 역할을 한다. 가장 쉽게 가슴에 와닿게 뜻을 전달하는 일은 어려운 작업이다. 그 밑바닥에는 해석학이 따로 존재할 정도로 복잡다단하다. 우선 문어체를 구어체로 바꾸고 초중고생, 일반인,

전문가에 따라 설명을 달리해야 한다. 외국어라면 상황은 전략적으로 바뀐다.

과거 연탄과 아궁이, 자동차 엔진과 동력전달 시스템으로 원자력을 비유하여 설명한 적 있다. 우리 직원은 현장에서 열심히 '사용후 원전연료 건식저장 캐스크'를 설명 중이다. 넥타이 정장에 깔끔한 머리 단장, 안경테는 학구적 인상을 준다.

오른손은 자연스레 저장용기를 가리키며 시선을 인도한다. 그는 지금 어디에 방점을 찍고 설명하고 있을까?

스틸 컷 한 장에 나오는 주인공을 아시는 분, 바로 응모하시라!

사진 속 주인공을 아시는 직원분은 sky03tree@kepco-enc.com으로 6월 15일까지 정답 주시면 추첨을 통하여 다섯분께 커피 쿠폰(일만원)을 제공합니다.



나의 도시 매력을 찾는 일

【 김천친환경생태공원 온실, 사명대사공원 건강문화원 】



김천이라는 도시가 나의 도시가 된 지 4년째다. 자의 반 타의 반 이곳에 도착했고, 이 도시를 싫어했다가 좋아했다가를 반복하며 차차 나의 도시로 받아들이고 있다. 김천에 대한 고운 정이 쌓일 때는 김천에 있는 매력적인 장소를 만났을 때다. 김천 친환경 생태 공원의 온실과 사명대사 공원 건강문화원에 갔을 때도 내가 사는 이 동네가 좀 더 좋아졌다.

따스한 온실 속에서 선인장 여행

작년 봄에 가족과 김천 친환경 생태 공원으로 피크닉을 다녀왔었다. 넓은 잔디밭에 돛자리를 깔고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저 구석에 하얀 온실이 있는 게 보였다. 하지만 주변에 직지사, 사명대사 공원, 김천시립미술관을 비롯해 워낙 볼거리가 많기에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 온실까지 관심이 가질 않았다. 그런데 그 온실 안에 선인장이 가득하고, 무료로 개방된 곳이란 걸 알고 솔깃했다. 가족과 함께 다시 친환경 생태 공원을 찾았을 때는 이 온실을 목적으로 정하고 왔다.



金泉



온실 안에는 사계절 내내 600여 개의 선인장과 다육식물이 자라고 있었다. 나른한 음악이 흐르는 채광 밝은 공간 안을 천천히 거닐었다. 처음 보는 온갖 종류의 선인장과 다육식물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손톱만 한 선인장부터 천장을 뚫을 기세로 자라는 선인장까지 다채로웠다. 꼭 선인장 가득한 사막 나라로 여행을 온 것 같은 이국적 사진이 담겼다. 이런 새로운 풍경 덕분에 조금 설레기까지 했다.

한옥 마루에 앉아 보랏빛 족욕

김천 친환경 생태공원 옆에는 사명대사 공원도 있다. 사명대사 공원을 따라 걷다 보면, 나름 김천의 명물인 평화의 탑을 지난다. 거기서 언덕을 조금 더 오르면, 야외 정자 자리에서 보는 풍경이 멋진 카페 ‘카페 말’이 있어 음료 한 잔 씹 하며 휴식을 취하기 좋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사명대사 공원 건강문화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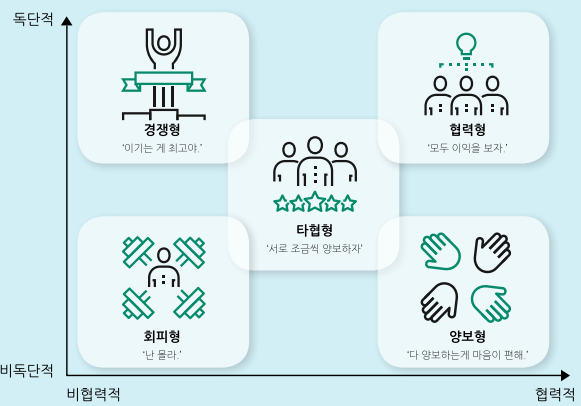
건강문화원은 신식 한옥이었다. 한옥 야외 마루에 앉아 라벤더 족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 봤다. 넓은 공원을 구경하느라 열심히 걷고 나서 쌓인 발의 피로를 풀기 좋았다. 한옥 야외 쪽마루에 앉아 라벤더 향이 나는 보랏빛 물에 발을 담그니, 온몸이 이완됐다. 마루 지붕 사이로 보이는 파란 하늘과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 소리까지 편안한 심을 주었다. 오랜만에 ‘쉬고 있다’는 감각을 느꼈다. 이곳에 함께 오고 싶은 사람들도 자꾸 떠올랐다.

김천 친환경 생태공원의 온실과 사명대사 공원 건강문화원 모두 평소에 보기는 했지만, 별 생각없이 지나쳤던 곳이었다. 거들떠보지도 않던 곳에서 기대치도 못한 만족감을 느껴 신선했다.



이 도시에는 없는 것에 주목하며 아쉬워하는 순간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아직 내가 이 도시를 잘 모른다는 점을 인정한다. 내가 몰랐던 매력적인 장소를 다녀오니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이 동네를 들여다볼 힘이 난다. 앞으로도 마주하게 될 나의 도시, 그 매력을 기대한다. E&C

여러분은 갈등 상황에서 주로 어떤 방식의 해결책을 찾는가? 개개인의 성향이 다르듯 갈등 상황 앞에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 의사결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무엇이나는 각기 다를 수 있다. 갈등 대응 스타일에 대한 연구 역시 다양한 분류 방식에 따라 진행되었으나 많은 조직에서 보편적으로 수용하는 Thomas & Kilmann의 모델은 조직 내 갈등관리 유형을 아래와 같이 5가지로 구분한다. 이 모델에서는 상대방 혹은 조직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관심이 있는 협력성과 자신의 요구를 충족하는데 관심이 있는 자기주장성 두 차원을 결합하여 5가지 갈등관리 유형을 제시한다.



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고객사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기 보다는 수용하는 대신 다른 요구를 함으로써 일종의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다. **회피형(Avoiding)**은 자기주장성도 낮고, 협력성도 낮은 상태이다. 정치적으로 조금 물러나 있는 상태인 경우도 있고, 불편한 감정이나 상황을 직면하기 싫어서 피하는 경우도 있다. 회피형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되면 갈등 상황이 오히려 커지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한다. **협력형(Collaborating)**은 회피형과 대각선의 방향에 있다. 협력형은 갈등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자극제로 받아들이고, 나와 상대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솔루션을 찾는 방식이다. 즉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서로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알아야 하고, 충분한 시간도 필요하다.

여러분은 다섯 가지 유형 중 어떤 대응방법을 우세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대체로 사람들은 갈등 상황에서 한두 가지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중요한 것은 상황에 따라 적합한 갈등관리의 방식이 있을 뿐 모든 갈등을 한번에 해결하는 만능 해법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갈등 상황은 사람들의 부정적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성모드가 작동되기 보다는 무의식적 자동모드가 작동된다. 우리의 뇌가 무의식적 자동모드가 작동될 때 대체로 자극에 대해 습관적 반응을 하게 되고, 그 습관적 반응은 문제 상황을 더욱 악화 시킬 때가 있다. 예를 들어 해당 이슈가 서로 충분한 대화를 통해 타협이나 협력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경쟁이나 회피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상대와의 관계만 악화될 뿐이다. 따라서 문제 상황에 따라 어떤 대응 방식이 좀 더 적합한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상황에 따른 적합한 갈등 대응 방식을 보자.

＜상황에 따른 적합한 갈등 대응 방식＞	
상 황	적합한 대응 방식
조직적 관점에서 반드시 실행해야 할 때, 비상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경쟁
이슈가 나보다 상대방에게 훨씬 중요할 때	양보
이슈가 사소하거나 제3자가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	회피
중요한 사안에서 서로 비슷한 파워를 가지고 팽팽하게 대치 되었을 때	타협
매우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협력

갈등 상황을 나와 조직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유연하다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융통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갈등이 싫어서 무조건 ‘Yes’만 해 왔다면 자신의 습관적 생각과 행동에서 벗어나 경우에 따라 ‘NO’라고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반대로 내 의견만 고집해 왔다면 다른 사람의 주장도 들어 보고 수용할 때도 있어야 한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로 유연한 갈등관리이다. 골퍼가 비거리, 잔디의 특징, 풍향에 따라 클럽을 바꿔가듯 우리도 갈등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식을 선택해 보자.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자극에 대한 습관적 반응이 아니라 내가 반응을 선택하여 좀 더 전략적으로 대응 할 수 있고, 나와 상대의 윈윈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E&C**

갈등 앞에서 유연함만이 윈윈을 이끈다

경쟁형(Competing)은 자기주장성은 강하고, 협력성은 낮은 유형이다. 경쟁형의 방식은 자신의 요구와 상대의 요구가 서로 다를 때 자신의 요구를 강하게 주장한다. 기본적으로 힘을 기반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다. **양보형(Accommodating)**은 경쟁형과 대각선 방향에 있다. 양보형은 나의 요구보다는 상대나 조직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수용함으로써 서로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스타일이다. 자기 희생이 따르는 유형이라고도 할 수 있다. **타협형(Compromising)**은 경쟁형과 양보형의 중간에 있다. 타협형은 자기주장성과 협력성을 적절하게 활용한다. 갈등해결의 목적이 타협안을 찾는 데 있거나 나와 상대가 적정 수준에서 기브 앤 테이크 하

호붓한 달빛의 이효석 문학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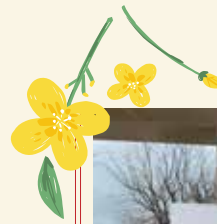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호붓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황순원의 ‘소나기’, 피천득의 ‘인연’,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글이다. 평창 이효석문학관을 방문하여 ‘메밀꽃 필 무렵’에 얹힌 배경과 일화를 살펴보았다.

우선 이효석 작품에는 ‘호붓한’이란 형용사가 자주 나온다. 국어사전에 없는 단어이다. 국내에는 ‘호뭇한’으로 쓰인 책도 있다. 읊조려 보면 ‘호뭇한’은 “속으로 은근히 기쁘다”는 뜻이고 ‘호붓한’은 “무언가 흐릿하면서도 흥건하다”는 느낌이 감돈다. 영어로 바꾸면 ‘Merry’와 ‘Abundant’ 차이 같다. 허 생원은 흥겨운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을까, 어슴푸레 흥건한 달빛 풍경에 숨이 멎었을까? 사보에서는 ‘호붓한’으로 표기하였다.

봉평장터는 깔끔히 정리되어 현대식 거리 같다. 매달 끝자리가 2일7일 날 5일장이 열리는 곳인데 장날을 맞추지는 못했다. 봉평은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와 가까운 지역으로 고개가 많고 산길이 험한 작은 마을이다. 소설 속 허 생원은 봉평, 대화, 제천, 청주를 돌아다니는 장돌뱅이다. 봉평장터에는 메밀 막국수, 보리밥, 산채정식, 장터국밥 식당들과 아담한 카페가 있다. 허영만 ‘식객’에 나왔다는 방림 막국수를 막 먹고 오는 길이라 아쉽게도 점심은 생략했다.

장터 거리를 벗어나 개울 쪽으로 가면 이효석을 기리는 가산공원이 있다. 공원 옆에는 맑은 홍청천이 흐른다. 이효석 문학관은 야트막한 언덕에 자리 잡아 그의 기념비, 청동상,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문학관 입장료는 2,000원이다. 문학관 맞은편 ‘달빛 언덕’은 이효석이 평양에 살았던 생가 ‘푸른집’을 복원하고 여러 조형물과 함께 산책로를 만들었다. 여기 입장료는 따로 받기에 두 곳을 관람하는 통합권(4,000원)을 끊는 게 편리하다. 산세가 높고 시냇물이 맑은 강원도라 그런지 공기가 맑고 개운하다.



십 년만 세월이 흘러도 시차 혼란을 겪는다.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를 현재 시점과 겹쳐도 인식차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효석을 통해 그 시대를 조금 복원해 본다. 이미륵, 강용홍, 백석, 이상 같은 인물이 동시대인이다. 이들은 다국어 화자들이다. 서당을 다녀 한자에 익숙했고 일본어와 영어에 능숙하면서 러시아, 중국어, 독일어도 익힌 사람들이다. 이들 중 작품 일부는 외국어로 남겼다. 여러 외국어를 구사함은 조선이란 공간에 국제적 감각을 입혔다는 뜻이다. 전통적 우리 정서를 새로운 형태로 옮겼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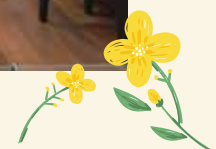
문학관에는 주울온천 사진이 있었다. 생소한 지명이다. 유럽식으로 세워진 온천장 건축물은 상당히 커 보였다. 흑백 가족사진 속의 아내, 이경원은 함경북도 경성(鏡城)에서 태어난 유복한 집안 출신이다. 이효석은 강원도 진부에서 태어나 봉평 초등학교를 다녔을 뿐 서울, 경성, 평양에서 활동하며 살았다. 안내자 설명에 따르면 경성은 함북 도청 소재지로 러시아에 가깝고 주울온천은 당시 백계 러시아인 온천휴양지였다. 이효석은 안톤 체호프 문학을 동경했고 만주와 하얼빈 등을 여행하면서 차츰 유럽 문화를 내면화해 나간다.



“향기로운 MJB의 미각을 잊어버린 지도 20여 일이나 됩니다. 이곳에는 신문도 잘 아니 오고 체전부는 이따금 하도롱빛 소식을 가져옵니다.”

이상의 산촌여정은 한국수필의 금자탑으로 꼽힌다. 구인회 선배였던 이효석의 커피 사랑과 더불어 후배 이상도 커피를 좋아했다. 그래서 성천기행(成川紀行)의 시작을 커피로 열고 있다. 이효석은 스스로 커피인이 박혀 커피가 마시고 싶어 죽을 지경이라고 말하였다. 헤이즐넛(개암나무)과 모카커피 향기를 끄적이라도 사랑했다고 전해진다. 그 당시 어떻게 귀한 커피 원두를 구할 수 있었을까? 짐작하면 일본인이 서울에 세운 미스코시 백화점, 평양의 선교사, 경성의 주울온천, 하얼빈 루트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평양 ‘푸른집’ 생가는 담쟁이덩굴이 벽면을 감싼 붉은 기와로 지은 근대식 별장이다. 거실에는 피아노가 놓였고 벽면에는 프랑스 여배우 사진이 걸렸고 구석에 축음기가 전시되어 있다. 그 시절 주부와 욕조를 흥미롭게 보았다. ‘메밀꽃 필 무렵’이 탄생한 산실이 바로 푸른 집이다. 이효석은 버터 바른 빵, 밀감으로 만든 잼, 커피, 우유, 프랑스 영화, 빨간 토슈즈, 장미, 서양 화초, 느린 G현의 음향, 재즈, 크리스마스트리, 붉은 벽돌집을 무척 좋아했다. 열거한 대상만 살펴봐도 얼마나 서구문화 취향자인 것을 알 수 있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 메밀꽃 필 무렵 중에서 —



구름이 부서지더니 구름사이에서
동근 달이 보이네



자연과 성(性)에 관한 탐구를 멈추지 않았다는 대목을 본 후, 이는 D. H. 로렌스의 주제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들과 연인’ 출판연도를 확인해 보니 1913년, ‘메밀꽃 필 무렵’은 1936년 ‘조광(朝光)’에서 발표하였다. 이효석은 로렌스 작품을 읽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달빛 언덕’에는 거대한 나귀 건축물이 있다. 계단을 타고 올라가 보니 나귀 등짝 안을 작은 서실로 꾸며 놓았다. ‘꿈꾸는 달 카페’는 비스듬하게 누운 아치형 건물로 지붕을 흙으로 메꾸어 그 위에 잔디와 나무를 심었다. 중앙에는 황토 난로를 설치해 두고 장작불이 일렁이듯 타고 있었다. 그 주위를 원형 서가로 꾸며 놓았다. 북 카페 분위기이다. 여기서 ‘이효석 문화의 밤’ 행사가 정기적으로 열린다. 모카커피를 사랑한 이효석을 떠올리며 카페에서 한 잔 마셨다.

허생원, 조선달, 동이, 물레방아간 처녀는 실존 인물일까? 상상적 환상이 아름답게 느껴지면 사람들은 실제 일어난 일이라 믿는다. 현실이 상상의 그림자처럼 보일 때도 있는 법이라면 복원된 주막, 물레방아간, 나귀는 현실이 상상을 모사한 것일까? 하지만 무한한 시공에서 놓고 보면 그날 물레방아간에서 처녀가 울고 있었던 것은 언제든 일어날 만한 일이다.

한 명의 문학가를 위해 이토록 넓은 공간을 제공하고 건축한 일은 무척 드물다. 그 규모가 국내 최대로 보인다. 평창은 왜 이토록 심혈을 기울였을까? 누구냐 ‘메밀꽃 필 무렵’의 장면을 떠올릴 만큼 글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결핵성 뇌막염으로 35세에 요절한 문인이 평창에 남겨둔 선물 같은 유산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소중한 기억을 가슴에 담듯 좋은 글은 잊혀지지 않고 마음에 남는다. 단편이라 하기에 엽편(葉片)에 가까운 ‘메밀꽃 필 무렵’은 간결한 시적 여운을 남긴다. 그의 ‘개살구’도 읽어 볼만한 작품이다. 강원도에 가신다면 봉평장터와 이효석 문학관을 한 번 둘러 보시기 바란다. E&C

그러나 ‘메밀꽃 필 무렵’은 토속적 서정으로 수 놓여있다. 이 단편만 보면 그를 향토애호가라 생각할 것이다. 서구 취향가가 남긴 토착 정서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평창은 그에게 유아적 고향이다. 어릴 적 잠시 머물렀고 성장은 서울, 생활은 함북 경성과 평양에서 이어갔다. 당시 지식인은 서구문화에 경도된 모더니스트가 많았다. 또 그는 영문학을 전공하여 가르친 사람이다. 서양 문화를 탐애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효석, 이상, 이미륵, 강용홀은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에 가깝다. 이상과 이효석에게 고향은 뭔가 어색한 비천함을 떠올린다. 이효석은 고향에서 이방인처럼 단절된 의식을 가진 소유자다. 그럼에도 고향이란 분리 불가능한 자전적 기억을 간직한 곳이다. 이런 사람은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정신적 창조물로 재구성한다. 그래서 고향은 전통적 서사가 아니라 현대적 기법으로 바뀐다. 예로서, 러시아 시골에 태어난 샤갈이 화려한 국제도시 파리에 등단하여 그린 그림은 어릴 적 보았던 시골 마을 풍경과 사람들이다. 샤갈은 고향을 몽환적 낭만으로 부활시켰다. 이런 맥락에서 괴로운 고향은 아름다운 환상으로 다시 태어난다.

문체는 그 사람 지문이란 생각이 든다. ‘메밀꽃 필 무렵’의 서정체 문장이 가진 힘은 놀랍다. 40년 전, D. H. 로렌스의 ‘아들과 연인’ 소설을 읽던 도중 어떤 기시감을 느꼈다. 영국 탄광촌이 무대로 광부인 남편과 교사를 지낸 아내가 격렬히 다투고 난 뒤, 슬픔을 참지 못한 여자가 한밤중 집을 나와 작은 숲길의 달빛 아래 머물렀던 장면이다. 이 장면이 ‘메밀꽃 필 무렵’과 오버랩 되었다. 문학관에서 이효석이 평생



부동산 투자의 조건

20년 전 부동산 버블론이 한창일 때 아파트는 공급과잉이라 거품이 꺼지면 폭락할 것이라는 온갖 전문가들 말이 쏟아져 나왔다. 이걸 믿었던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바뀌는 정부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했다. 지금 전국 어디를 가도 아파트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이다.

주식투자는 ‘기울어진 운동장’, 7명이 돈을 잃고 3명이 돈을 챙기는 구조라고 한다. 한 해 농사 잘했다가 한 달 만에 모두 반납하고 손실을 보았다는 사람도 있다. 변동성 파도타기가 결국 쉬운 일은 아니다. 보통 부동산 가격은 꿈쩍도 하지 않다가 갑작스레 20~30% 몇 계단 성큼 뛰어 올라가 버린다. 2021년 초반 김천혁신도시 내 아파트는 분양가에서 2천~3천만 원 낮게 내어놓아도 팔리지 않았다. 중순 무렵부터 1억 정도 훌쩍 뛰어올랐다. 소리 소문 없이 일어난 일이다.

주식은 기업 실적, 통계, 분석 등의 공개정보가 많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투자는 불완전 공개 정보시장이다. 정확히 어떻게 가격 메카니즘이 형성되는지 모르겠다. 1980년~2000년 시기에는 도시 외곽지대로 3년마다 부지런히 이사하면 부자가 된다는 통설이 먹히는 시대였다. 노후보장에는 3층 상가건물을 사서 위층에 살면 해결된다는 논리가 성행했다. 이런 속설들이 아직도 유효한가?

부동산 투자는 큰돈이 들고 매매의 구속을 받는다. 시기가 어긋나면 주식 종목 선택에 비해 손익이 크게 오고 간다. 덩치가 커서 느리게 선회하는 특징을 갖는다. 그래서 판단이 더 어려울 수 있다.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보았다.

1. 입장에 강하다.

주말이면 여기저기 건축물과 땅을 보러 다니는 걸 즐긴다. 이걸 ‘임장’이라고 하는데 현지를 답사하여 이모저모 따져가며 가치를 탐색하는 활동이다. 여러 정보를 지역 공인중개사나 주민들에게 듣는다. 이는 서류와 지식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일이다. 눈으로 실감하고 확인하는 입장도 경험 따라 비례한다. 토지의 경우 경사도, 도로, 굴곡 등은 인공위성 지도로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

2. 레버리지 활용

조그만 상가건물을 대출받아 매입한 아주머니가 있었다. 위치 목이 좋아 발전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남편이 상의 없이 빚을 끌어모아 대출이자 갚을 생각 하니 앞이 캄캄하다고 밤마다 아내를 질책했다.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여 팔아버리고 말았는데 6개월 후 건물이 3배 올랐다. 아주머니는 가슴만 두들길 수밖에 없었다. 부동산은 큰돈이 들기에 회피 심리가 작동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레버리지 효과와 리스크를 감안하고 과감해야 한다.

3. 폭넓은 상식

부동산 투자는 취득-보유-양도 과정에서 다양한 경제정책, 법률, 세금, 등기, 소송, 협상 등의 복잡한 문제를 떠안을 수 있다. 부동산 관련 어느 정도 지식과 경험이 필요할까? 기초적인 것을 우선 폭넓게 아는 게 중요하다.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책과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하고 설명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 모르면 질문조차 할 수 없다. 평소 관심 가지고 조금씩 알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채권, 부동산, 현금, 금과 은, 외환 등 다양한 선택이 있다. 뚜렷한 장단점으로 각각의 특성이 다르다. 이번 호에는 가벼운 주식보다 무거운 부동산을 이야기해 보았다. **EXC**



서로 사랑하라
율곡성당 요한신부

하느님 나라는 홀로 싹을 틔워 성장하는 씨앗으로 조그만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나고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누룩이란 비유로 나타난다. 율곡 성당 가는 길, 백목련은 등잔 심지 불은 불꽃처럼 봉우리를 맺었고 나뭇가지마다 연분홍 꽃들이 소록소록 맺혔다. “조그만 기다려요. 곧 문 열어드리리라” 그런 꽃들의 속삭임 속에서 뱀이 지팡이로 변하고 지팡이를 두들기자 물이 솟고 또 지팡이에 움과 순이 돌아나 꽃이 피어나는 구약의 장면을 떠올려 보았다.



검정 신부복과 반짝이는 안경이 마당으로 걸어 나온 걸 보자 약속한 요한 신부란 걸 단번에 알았다. 작년 겨울 굴삭기와 콘크리트 드릴이 요란한 소음을 올리는 와중, 행하니 벌거벗은 건물 안에 뛰어들어 공사를 지켜보던 사람에게 여기 신부님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물었다. “바로 저예요” 무언가 찾아 헤매면 그 대상이 바로 코앞에서 물끄러미 보고 있다. 취재 약속은 성당 개축 공사 중이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다. 최근 미사가 환한 불빛 아래 진행되는 걸 길가에서 보았다. 그 사이 신부님이 그만 바뀌었다.

낡은 건물은 세월이 쌓인 녹진함의 무게 같은 게 있지만 새로 태어난 성당은 단아하고 정결하다. 성당 현판은 희랍어와 라틴어로 쓰였다. 홀로 성당 안에서 기도드리던 여인이 자리를 비워주셨다. 정원에는 말이 없는 마리아상이 서 있었고 예전 건물은 마리아 생활관으로 바뀌었다. 율곡성당은 대구 교구에 속하고 천명 이하의 신도, 평일 미사 신도가 삼백 명 정도 되는 작은 회당이란 설명을 들었다. 우리 직원이 어느 정도 미사에 참여할까?

생활관에서 서막한 분위기를 깨자고 본인이 부산에서 태어나 고향을 찾은 후 어느 날 동네 한 바퀴 돌다가 ‘이태석 신부 기념관’이 생겨난 걸 알았다고 말했다. 신부님이 듣고서 “아, 쫄리 신부님”, “쫄리가 무슨 뜻입니까?”, “John Lee의 애칭입니다”. 이태석 신부와 내가 태어난 동네는 변두리 못사는 동네로 골목길, 시장, 학교 운동장 어디선가 몇 번 섞인 적도 있었을지 싶다. 왜 그는 가난한 아프리카로 건너갔을까?, “그것이 그분의 기쁨이자 즐거움입니다” 신부님은 간결히 답하신다.

어제밤 유튜브에서 ‘쌍둥이 아빠, 쌍둥이 엄마를 본 아기들 반응’ 동영상을 보았다. 맞은편 쌍둥이 엄마가 나타나자 아기는 어리둥절 그쪽으로 가겠다고 때를 쓰다가 건너가 보니 또 바로 눈앞에 엄마가 나타났다. 아기들은 계속 울면서 왔다 갔다. 우연히도 오늘 신부님이 사진찍자를 가리키며 “저는 쌍둥이로, 동생도 사제입니다”.

요한 신부는 저체중으로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로 들어갔다. 조금 후 동생이 세상에 나왔다. 어머니는 유아세례를 서둘렀고 둘 중 한 아기는 사제로 봉헌하겠다는 기도를 올렸다. 어쩌다가 쌍둥이 둘이 사제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또한 '오묘한 섭리' 중 하나가 아닐까. 신부님은 웃으면서 사제 된 것은 어떤 계시나 목소리를 들은 것은 아니지만 마음먹은 순간부터 예비 된 일처럼 술술 풀렸다고 하신다. 사람 운명이란 보이지 않는 손길 따라 이어지는 길을 가는지도 모르겠다.

가톨릭에서 강조하는 영성이 우선 궁금하였다. “기도 열심히 한다고 영성이 깊어지는 것은 아니고 하느님과 의 관계, 삶이 하느님 중심으로 엮여져, 섭리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비온(Bion) 식으로 표현하면 ‘궁극적 실재(O) 안에서의 변형(T)’과 ‘항구적 결합(C)’ 아닐까 해석해 보았다.



유럽을 여행하면 절반 이상이 성당 순례이다. 어떤 나라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썩지 않는 성자의 손’을 본 적 있다. 또 아는 게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뿐이다. 성자 이야기를 청하였다. “소화(小花) 데레사에게 감화받았어요” 이분은 1870년대 프랑스 수녀인데 24세 무렵 세상을 떠났고 소박한 단순성에서 우러나는 영성이 깊다. 작은 꽃의 자서전은 꼭 읽어 보아야겠다. 적나라 한 것인지 무지한 것인지 용기 내어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물었다. “네,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하는 유행불이 일렁이는 그런 천국과 지옥은 아닙니다” 이 말씀 하시고 또 약간의 미소를 흘리신다.

신부님은 대구, 포항, 경산 등지에서 교직을 맡으시고 올해 초 김천 혁신도시로 부임하였다. 낯선 도시인데 간혹 멀리서 한기 건물을 바라보면 집이 가깝다는 안도감도 생긴다. 이런저런 사육구조를 설명드렸는데, 지역주민이 한 번 옥상까지 올라가 전망을 내려보는 작은 Open Program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 하신다. 우리 직원을 위해 “업무를 최선으로, 봉사하는 신념으로, 세상에 기쁨과 도움 주는 역할 하시기 기도합니다”는 말씀을 남겼다. 더불어 사보 독자를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라!” 당부하였다.

이웃집 아저씨 같은 포근한 인상에 야구부 코치를 연상케 하시는 신부님은 여가 날 때 등산과



낚시를 즐기고 천성이 그런지 정리 정돈, 청소하면 기분이 한결 나아진다. 그리고 생활의 편리함에 관심이 많다. 울타리, 계단, 탁자 등을 고치거나 배치를 바꾸기도 한다. 신부님은 이런 기질을 ‘약간 보이 스카웃’ 느낌이나 활동’이라고 뭔가 만들고 꾸미는 걸 좋아한다.

신부님은 방문자에게 “지금 행복한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인가요?” 질문을 던졌다. 이런 물음은 위치추적과 유도를 동시에 하는 미사일이다. 그래서 대답은 대개 형편없어진다. 신부님은 ‘태어나는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아무런 뜻이나 의미 없이 세상에 나온 것은 아니다.

울곡성당 다니고 싶은 분 또는 가톨릭 입문하고 싶은 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막 성당 증개축을 끝낸 참이라 다음카페 울곡성당 홈페이지를 그동안 신경 쓰지 못했다. 앞으로 수선하여 미사 일정과 소식을 올릴 계획이다. 참고로 월요일 빠고 미사는 향시 있다. 초심자를 위한 6개월 예비자 교리반 코스도 운영 중이다. 세상 살면서 영혼이 정처 없이 떠도는 느낌이 들 때, 요한 신부를 찾아가 한 번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것도 좋겠다.

울곡성당 뒤편 구름이 무릎에 걸친 채 걸어 다니는 청동 다리 상이 있다. 밤이면 거대한 발가락은 조명을 받아 빛난다. 걸리버 거인국에서 모티브를 잡은 것일까. 이런 큰 발이 눈에 보이지 않게 성큼성큼 걷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하느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며,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는데, 그것은 하느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누가복음).”

인터뷰 대화는 비선형적으로 이루어졌다. 마지막 대화 목록을 남긴다. 신부님이 압축적으로 말한 어려운 내용이라 여기서 서술을 생략하였다. 하지만 미래의 비망록, 한 번 나타났다가 사라져 보이지 않는 해도(海圖) 같은 것이다. 누군가는 해독하실 것이라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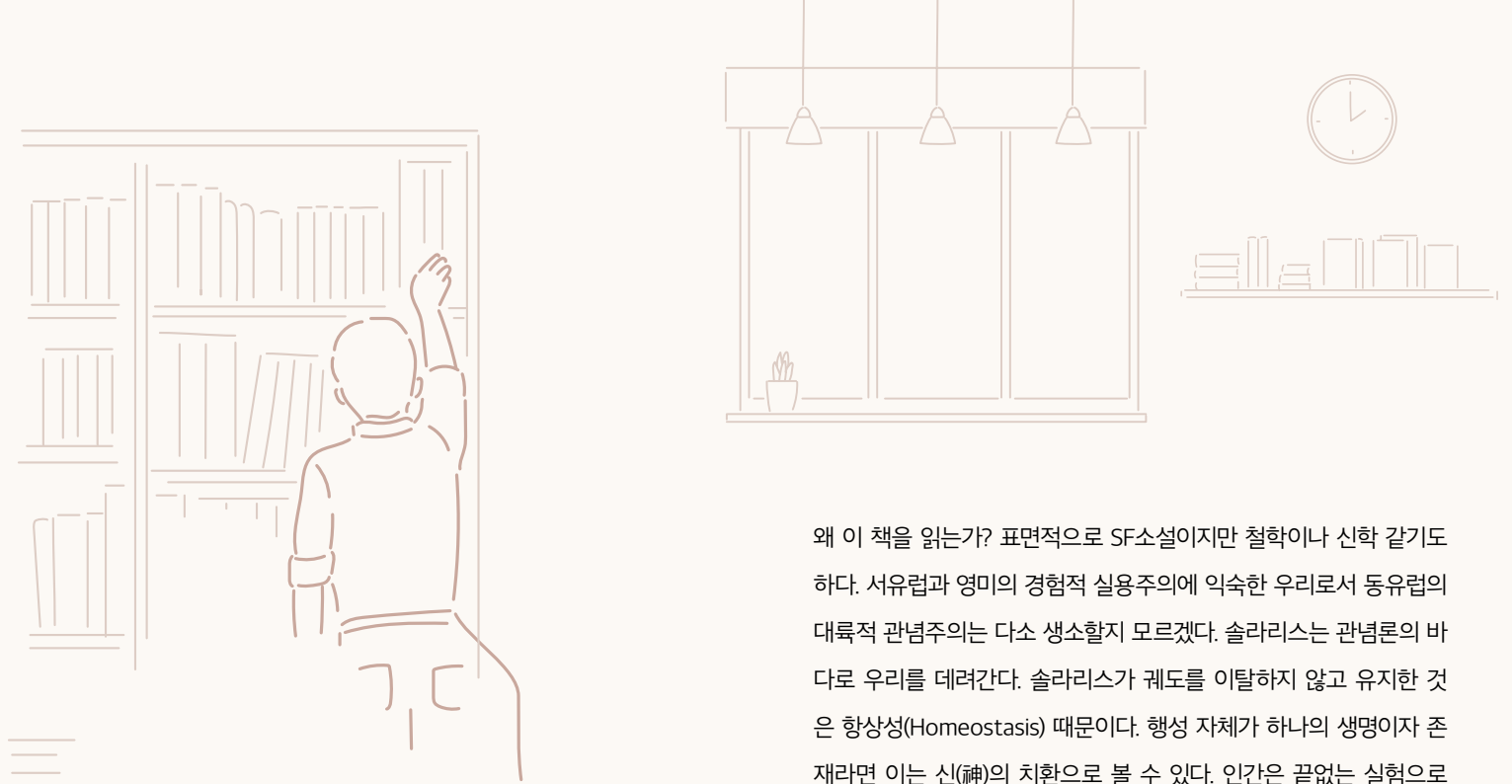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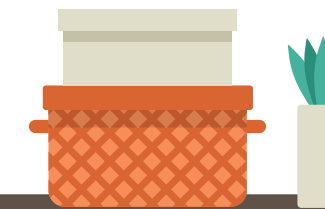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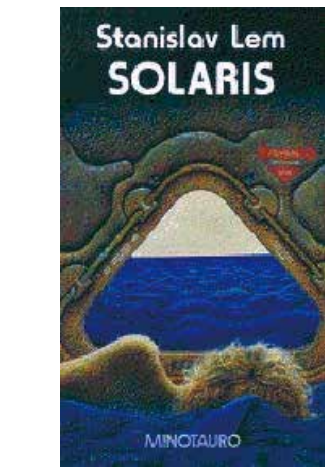
“배교자의 귀환, 혼화의 비밀, 시간과 공간 없음, 絶對無, 완전한 나라, 순수 현실태의 동시진행성, 익명의 그리스도, 탈 인간중심의 생태신학, 섭리의 임재, 종교 체험성의 다양한 층차와 관용적 보살핌, 위무하는 자로서의 성직자” **E&C**

솔라리스 : 불가해의 바다

솔라리스를 30년간 읽었다.

앞으로 30년 더 읽어 볼 생각이다.

일반 소설 2/3 정도 분량이다. 두 개의
태양을 자전하는 바다로 이루어진 행성의
장엄한 묘사로 책 안이 가득하다.



줄거리는 간단하다. 지구에서 솔라리스를 발견한 후 이 별이 태양 주변을 돌다가 중력 궤도를 벗어나 우주로 사라질 시기를 예상하였다. 그날이 왔지만 그대로 운행 중이다.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탐사선이 보내졌다. 이후부터 지구 과학은 혼란에 직면한다. 솔라리스 學이 생겨나 온갖 가설과 실험을 해보지만 아무 것도 알아낼 수 없다. 인간이 수소폭탄을 바다에 투하해 보지만 이런 시도를 발가락 무좀균만치도 여기지 않는다. 때로 바다는 거대한 인간 태아 형상을 수면 위에 만들어보거나 전자기기를 복제한 적도 있다. 솔라리스는 대부분 완전한 침묵에 빠져 있다.

할리우드 SF 영화를 보면 어디서 솔라리스를 차용했는지 찾을 수 있다. 러시아의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미국의 스티븐 소더버그가 영화로 제작한 적도 있다. 그러나 영화는 소설을 백분의 일도 옮기지 못했다. 그래서 “텍스트는 비주얼보다 힘이 세다”는 실례로 이 소설이 인용된다. 솔라리스의 장대한 형상을 영상화하기는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

원작은 1961년도 폴란드어로 발표되었다. 몇십 년 후 프랑스어로 번역되었다가, 이 번역본을 기초로 영어로 옮겨졌다. 영역본을 참고로 한국이 또 번역하였다. 중역에 중역을 거듭하였기에 원문이 어떤지는 알 수 없었다. 2022년 2월 민음사에서 원전을 토대로 완역본을 출간하였다. 지구력 61년만에 온전한 솔라리스 바다가 한국에서 나타났다.

왜 이 책을 읽는가? 표면적으로 SF소설이지만 철학이나 신학 같기도 하다. 서유럽과 영미의 경험적 실용주의에 익숙한 우리로서 동유럽의 대륙적 관념주의는 다소 생소할지 모르겠다. 솔라리스는 관념론의 바다로 우리를 데려간다. 솔라리스가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유지한 것은 항상성(Homeostasis) 때문이다. 행성 자체가 하나의 생명이자 존재라면 이는 신(神)의 치환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은 끝없는 실험으로 솔라리스 미스터리를 추적하지만 알려진 것도, 알아낸 것도 없다.

꽤 난해한 책인가? 꼭 그렇지는 않다. 솔라리스 學이 씨줄이라면 켤빈과 레야의 사랑은 날줄로 엮여 있다. 꿈에서도 잊지 못하는 연인, 자살했던 여자가 갑자기 나타난다. 그런 레야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 켤빈과 레야가 나누는 대화는 가슴 저미도록 아프다. 인간의 사랑, 생명, 기억, 고통이 불가지론의 바다 상공에서 환영처럼 넘실거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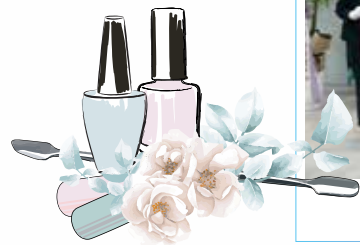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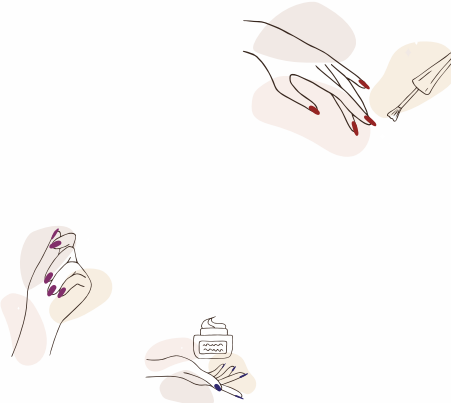
렘은 IQ 180으로 알려졌지만 최소 200은 족히 넘을 것이라 믿는 사람이 많다. 그가 타계한 날, “우주인이 지구를 떠났다”는 부고가 나왔다. 솔라리스 소설은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하기 이전 나왔다. 컴퓨터, 인공지능 같은 기술은 훨씬 훗날 일이다. 그런 개념이 없던 시절 프로그램 메모리, 로봇을 구상하였으니 지금 읽어도 흥미롭다.

참고로 영화와 소설은 내용이 다르다. 텍스트 읽기 힘든 분은 두 편의 영화를 감상하고 나서 도전하여도 좋겠다. 솔라리스는 과학, 철학, 신학, 미학에 관심 가진 분에게 추천한다. 솔라리스는 미친 광인, 은둔자, 자폐증자, 깊은 무의식, 신(神), 무한한 침묵, 완전한 무지, 불가지론, 관념의 바다, 변태 등의 별칭이 많다. 책을 읽으면서 솔라리스 Spec(형질, 행태)를 노트에 적어보아도 재미있다. 인간의 깊은 심연을 보여주는 지혜의 원천 같은 책이다. 아니면 흑암을 가로지르는 빛일까? **E&C**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네일케어 사업 ‘섬섬옥수’

2021년 기준 국내 등록장애인 수는 이백육십만명이 넘는다. 몇몇 장애인들은 신체나 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회에 정착하기 힘든 여건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목표는 단순히 소득보전이라는 차원을 넘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목표로 한다. 직업교육과 취업 그리고 직장생활을 통해 사회 내에서 가능한 한 사회적, 경제적으로 독립된 형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 사회에서 직업이란 단순히 먹고살기 위한 돈을 버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개인의 중요한 삶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우리 회사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지원에 힘쓰고 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회사는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장애인공단과 협력하여 회사 인근 김천구미역사 내 공간을 활용 네일케어숍 ‘섬섬옥수’를 2021년도에 개소하여 운영중에 있다. 네일케어숍 ‘섬섬옥수’에는 장애인고용공단 주관 네일케어 산학 연계 직업 교육훈련을 4개월(344시간) 간 이수한 총 10명의 네일아트스트가 근무하고 있다. 섬섬옥수는 고속철도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예약을 통해 무상으로 네일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무자들을 위한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들도 마련되어 있다. 특히 근로자 중 경력단절여성들의 비율이 높아 육아를 위한 가족돌봄휴가, 자녀돌봄 휴가를 부여하는 등 본사 정규직과 동일한 복무제도에 의해 근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사 제휴 콘도 및 휴양시설 이용, 통근 셔틀 버스 제공 등으로 근무자들의 복무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이번 사업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일시적 일자리에 대한 장애인의 채용 의존도를 완화하였으며, 대국민서비스 제공에 기여하여 공기업으로서 상생과 공영의 기업 가치를 제고하였다는 점에 있다. 우리 회사는 향후에도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나갈 것이다. [E&C](#)





서문시장, 청라언덕, 계산성당

전통 시장은 세계 어디서나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다양한 볼거리, 흥성거림, 먹거리의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대구 한복판 서문시장은 전국 3대 시장 중 하나이다. 송월타월이란 입간판이 거리에 많다. 섬유 도시답게 화려한 주단, 포목, 인견, 이불의 알록달록 색깔을 구경하면서 시장 안을 돌아다녔다.



대략 점포가 5,000개, 상인이 2만명 큰 시장이다. 바다와 접한 자갈치 시장은 건어물 상가 가 꽤 쇠락했는데 의외로 바다 없는 도시에서 건어물 상가는 규모가 크고 정리가 잘되어 있다. 길가에 감태, 파래, 김을 내어놓았다.

시장구조가 복잡하고 유동 인구 많은 곳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게끼리 나름 질서를 잡았다. 비가 쏟아지면 본래 시장이 질퍽한 난장판이 되는데 비 가림 천장을 해 놓았다. 하늘을 올려보니 트램 열차 3량이 고가철도로 지나다닌다. 왜 이렇게 국수집이 많을까? 참살 수제비를 선두로 칼제비, 비빔국수 메뉴가 군데군데 붙어있다. 봄철 산나물도 나왔고 호박과 녹두 죽집이 드문드문 보인다. 시장 먹거리 중 칼제비가 압도적이다. 점심은 찜갈비 식당 골목에서 먹었다. 양푼이 그릇에 매운 양념과 갈비를 담고, 무생채와 청국장을 밥에 비벼 함께 먹는다.

동쪽 맞은편은 계명대 동산병원이다. 이 길을 쭉 따라가다가 '청라언덕'을 보았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운 '동무생각' 노래가 떠올랐다. 노래 절정은 '청라언덕과 같은 내 맘에 백합 같은 내 동무야, 네가 내게서 피어날 적에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청라언덕'이 푸른 언덕의 일 반명사인 줄 알고 살았다가 오늘에야 고유명사란 걸 알았다. 선교사 스위트, 블레어 주택이 울긋불긋 꽃 언덕에 있었다. 그 시대를 상상하면 당시는 서양식 대저택이었을 것이다. 낮은 언덕을 지나 녹색 십자가 참담, 국화무늬 중앙벽면, 붉은 벽돌벽의 계산성당이 나타난다. 대구 삼일 만세운동의 중심지로 1899년 최초로 지어졌다가 1900년 재건축하였는데 100년 세월을 훌쩍 뛰어 넘는다. 여기에는 한복 입은 김대건 신부의 스탠드클래스가 있다.

마지막 찾은 근대골목길, 이상화 고택이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지은 시인이다. "나는 온몸에 꽃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켰나보다." 푸른 의의(義意) 나무를 심으려는 이상화에게 꽃내 띠 푸른 웃음과 푸른 설움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서러운 해조'를 집에서 써낸 뒤 숨을 거두었다. 이상화 가족사진과 함께 여러 풍물을 통해 당시 시대상을 엿볼 수 있다. 서문 시장 근처에는 달성공원도 있으니 이곳을 산책하고 내려와 시장에서 참살 수제비를 먹고 근대건축물을 구경하는 코스를 추천한다.

대구는 분지형 지형으로 겨울에는 춥고 여름은 무덥다. 에어 포켓처럼 담긴 공기는 바람길 이 열려 있지 않다. 김천은 '바람의 도시'이다. 처음 '폭풍의 언덕'인 줄 알았다. 추풍령 고개가 터널로 작용하여 바람이 아래쪽으로 뚫다 달려내려 간다. 김천 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도시가 대구이다. 젊은이는 데이트, 중장년층은 쇼핑하러 대구를 들린다. 주로 동대구역을 찾는다지만 서문 시장 쪽도 볼거리가 많으니 한 번 찾아보시기를.

시장을 둘러보다가 추석 제수가 생각났다. 꿀벌 실종 사건. 사월과 오월이면 벌 날아다니는 소리로 공기가 진동하는데 온데간데 없다. 전국적으로 꿀벌이 싹 사라졌다. 여름이 지나면 복숭아, 자두, 포도, 사과 보기가 아마 어려울 것이다. 복숭아꽃이 만발하여 꿀을 가득 담고 있는데 정작 꿀벌의 왕왕 날개 짓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올해 과일값이 심상치 않을 것 같다. **E&C**

Culture

DESIGN

crea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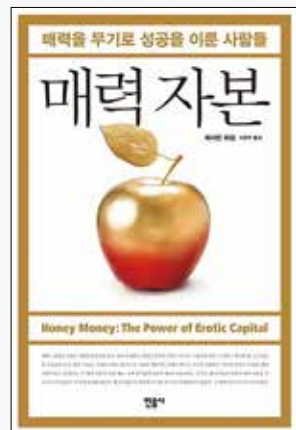
DESIGN POSTER

2022.05.10

Book

매력자본

민음사 | 2013년 2월 1일 출간 | 값 16,000



아름답고 매력적인 사람들이 독점해 온
성공의 비밀!

매력을 무기로 성공을 이룬 사람들『매력 자본』. 저자 캐서린 하킴이 2010년 옥스퍼드대학교 저널《유럽사회연구》에 발표해 세계적 화제를 불러일으킨 논문 ‘매력 자본’을 엮어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아냈다. 저자는 자신이 만든 ‘매력 자본’은 경제 자본, 문화 자본, 사회 자본에 이어 현대 사회를 규정하는 제4의 자산이라고 이야기한다. 다양한 사례와 통계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외모, 건강하고 섹시한 몸, 능수능란한 사교술과 유머, 패션 스타일, 이성을 다루는 테크닉 등 사람을 매력적인 존재로 만드는 이 모든 자원이 일상을 지배하는 ‘조용한 권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Drama

소년심판

넷플릭스 방영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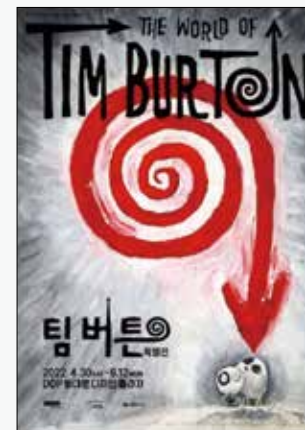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가 한 지방법원 소년부에 새로 부임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휴먼 법정 오피스극. 지방법원 소년부의 엄정한 판사. 복잡다단한 사건들을 다루며, 소년범에 대한 반감, 정의와 형벌에 대한 굳건한 신념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간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소년범이라고 해도! 소년범을 혐오하는 까칠한 판사가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한다. 청소년 범죄율이 가장 높은 법원이란 이제 법정의 칼바람은 예고된 것일까. 김혜수, 김무열, 이성민 등 연기파 배우들이 사회에서 뜨거운 이슈인 소년범을 주제로 열연을 펼친다.

Exhibition

팀버튼 특별전

2022.04.30 ~ 09.12 | DP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성인 20,000원 청소년 15,000원 어린이 1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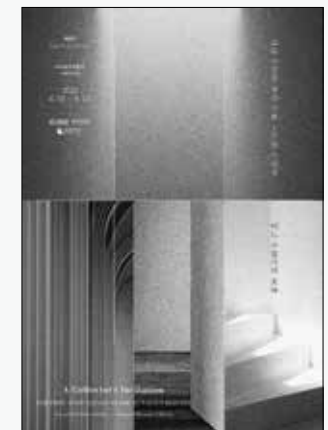
The Wrld of
Tim Burton

‘가위손’, ‘배트맨’, ‘찰리와 초콜릿 공장’ 등 몽환적인 이야기와 기괴한 캐릭터로 사랑을 받은 세계적인 영화 감독 ‘팀버튼’ 그가 직접 기획한 역대 최대 규모의 전시가 10년만에 한국에 찾아온다. 지난 50년간 실제 작품과 프로젝트를 팀버튼 감독의 발자취에 따라 구성한 역대 최대 규모의 전시로 총 520여점의 스케치, 드로잉, 조각, 멀티미디어 등 다채롭고 풍성한 콘텐츠로 구성된 입체적 볼거리를 제공한다. 한국 관람객들을 위해 팀버튼이 직접 디자인한 조형물이 최초로 공개된다.

Exhibition

어느 수집가의 초대 - 고故 이견희 회장 기증 1주년 기념전

2022.04.28 ~ 2022.08.28 |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성인 5,000원 청소년 및 어린이 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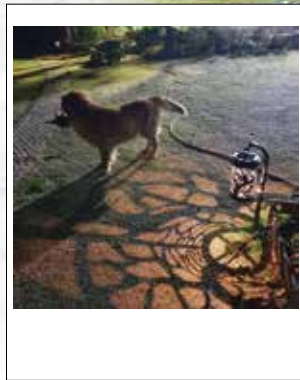
어느 수집가가 여러분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수많은 수집품이 수집가의 집에 가득 차 있다. 수집품에는 상상력을 펼치며 끊임없이 경계를 넘은 인류의 궤적과 지혜가 잘 보존되어 있고, 수집가는 자신의 수집품 속 인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수집품에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요? 이번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이 함께 준비하고, 광주시립미술관, 대구미술관, 박수근미술관, 이종섭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이 함께 출품하였다.

시골집을 찾아서

봉산면은 추풍령과 김천 시내 중간쯤에 있다. 난함산을 뒤로 봉계천이 흐르는 동네가 인의리다. 새가 알을 품는 분위기의 아늑한 곳이다. '단'을 충청도에서 '배미'라고 배웠는데 위 배미는 기와집 한 채가 숨은 듯 동주리를 틀었고 아래 배미는 정원으로 꾸몄다.

집을 들어서자 정원에 스타니파타 한 구가 걸려있다. 봄철의 햇빛을 받아 정원 꽃과 나무들이 환하게 빛난다. 골든 리트리버 두 마리가 폴쩍폴쩍 안을 뛰어다닌다. 한 마리가 앞다리를 X자로 포개어 허벅지를 잡고 놓아 주지 않는다. 걸음을 내닫지 못해 잠시 감금했다. 오골계 부부는 포란 중 나오지 않아 인사를 못 드렸다. 작은 연못에는 피라미 떼지어 원을 그리며 헤엄친다. 원두막, 정자, 흙집 건물을 둘러보니 주인이 아지트 병을 앓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게 일종의 지병인데 고치기 어렵다. 오늘 방문도 병정동자 래구화(丙丁童子 來求火), 병자가 환자 찾은 격이다.



큰 창을 내고 테이블 놓은 쉼터 정자는 비 오는 날 파전에 막걸리 그리고 커피를 마시며 죽여 줄 운치이다. 거기다 빗소리까지 들으면 두 번 죽는다. 정원 풀이 왜 이리 푸르냐고 물었더니 보리라고 한다. 내 몸이 보리밭 파르르 싱그러운 초록빛으로 물들 것 같다. 장독 화분 군데군데 노란 꽃, 흰 꽃이 눈을 간지럽힌다. 기와집 내실을 들어가 처음 눈에 뜨인 것이 철완 아톰, 요술공주 세리 판화이다. 아들과 딸을 생각하며 주인이 직접 그렸다.

거실에는 결이 살아있는 통짜 테이블, 책장이 가지런히 놓였고 창을 통해 앞마당이 시원하게 들어 온다. 뒤란의 부속건물은 작업장이다. 벽면에 공구가 착착 붙어 도열 중이다. 찬장인 줄 알았는데 열어젖히자 뒤란이 환하게 드러났다. 바로 위 그림 한 점이 단정히 걸렸는데 직원 가족 중 화가 한 분이 선물하였다. 전원주택이라면 강,



시냇물이 내려 보이는 언덕에서 잔디와 산뜻한 조경, 하얀 담장, 예쁜 이층집을 꿈꾸는 분이 많다. '저 푸른 초원 위 그림 같은 집' 보다는 핸드 메이드, 자신이 하나씩 창조해 가면서 가꾸는 집이 오히려 좋아 보인다. 세사에 얽매이고 싶지 않은지 주인은 익명을 원하였다. "그런데요, 알 사람은 또 다 알아요" 웃는다. 집이 부럽고 탐나 한 삼 일 빌려 지내고 싶어진다.

꼭 보여주고 싶은 곳이 동네에 있다고 하여 울수재를 찾았다. 현판에는 매계구거(梅溪舊居)라 적혔다. 시냇물 따라 꽃잎 흐르는, 낙화유수의 꿈이 고인에게 있었나 보다. 사당이나 재실 같아 보이지 않는 고택이다. 문밖에서 한 걸음 옮겨 문 안으로 들어간 순간 놀랐다. 아니 그 기운에 감동했다. 예전 수운교 도솔천에서 신령함을 느꼈다면 매계구거를 난항으로 본다면 정원, 담, 대죽숲의 구성이 짝집에 해당한다. 울수재에서 청정한 풍류가 물씬 흘러나왔다. 주변 단장을 공원식으로 깔끔히 해 놓았고 넉넉한 주차 공간이 있다. [ESC](#)

Editor's Letter

1970년대 미하엘 엔테의 동화 ‘모모’와 ‘모모는 철부지’ 노래가 대박을 터트렸습니다. 동화에는 시간저축은행 영업사원 회색 인간들이 나옵니다. 사람들로부터 시간을 빼앗는 시간 도둑 역할을 하지요. 요즘 TV에서 영화 보려면 30~40분 광고를 보아야 합니다. 유튜브도 구독료 내지 않으면 막간 광고가 끼어듭니다. 하루 스캔 전화, 문자, 메일에 시달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하루 팝업 창을 몇 번 지우는가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광고 노출 시간이 얼마일까요? 물론 돈을 지불하고 귀찮은 광고에서 조금 해방될 수 있습니다.

부자는 시간 가치를 우선으로 비용을 기꺼이 지불합니다. 직선 코스 비행기를 탄다거나 법무사에게 등기 대행을 하거나 집수리를 인테리어 업자에게 맡기기도 합니다. 돈이 아깝다면 뭐든 손수 해야 합니다. 택시보다 버스를 타거나 도시 변두리 호텔에 숙박하거나, 어떤 서비스든 돈으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수명은 다르지만 하루 24시간은 공평합니다. 일생에서 하루 1시간은 광고와 서비스에서 시간을 빼앗긴다고 계산하면 한 번 모모가 되어 도둑맞은 시간을 되찾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당첨자 발표



◆ 이달의 한컷! : 커피쿠폰 1만원

- 박재영 (디지털엔지니어링실 사원)
- 김지옥 (IT솔루션실 사원)
- 김종민 (기술전략실 사원)
- 신성욱 (안전관리실 사원)
- 오유진 (마케팅총괄팀 사원)

◆ 한기인의 메아리 : 커피쿠폰 3만원

- 이동진 (스마트융합실 과장)
- 박준우 (전기계측기술실 사원)

◆ 독자의견 : 도서문화상품권 3만원

- 박수연 (원자력사업처 사원)
- 김은미 (사외독자)
- 정경석 (사외독자)
- 배명순 (사외독자)
- 이경숙 (사외독자)

원고모집



■ 여행이나 맛집, 반려동물, 취미 등과 같은 직원 여러분의 또 다른 일상을 소개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원고와 사진을 보내주시면 사보에 소개해 드립니다.

▶ 분 야 : 또 다른 일상을 소개하는 에세이

▶ 원고 분량 : A4, 2면

■ 평생 정을 나누며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절친을 찾고 있습니다. 본인과 친구 1명이 함께 2인 또는 3인으로 산책, 식사하면서 즐겁게 대화 나누는 대담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분 야 : 기획코너 ▶ 원고분량 : A4, 2면

원고료 제공, 신청하시고 계획 제출 후, 기타 지원 방안 협의

■ 여러분의 추억이 깃든 사진이나 짧은 에세이를 적어 보내주시면 사보에 소개해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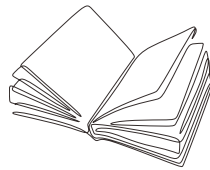
▶ 분 야 : 기획코너 ▶ 원고분량 : A4, 1면

원고료 제공합니다.

독자의견 및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원고는 6월 15일까지 sky03tree@kepc-enc.com으로 보내주세요. 원고나 독자의견을 보내주실때는 주소와 연락처를 꼭 보내주셔야 상품 전달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호 사보를 읽고(독자의견)



• MZ세대와 소통을 위한 ‘함께 하는 경영웃 위원회’ 소식 인상깊게 보았습니다. 가치를 중시하는 MZ세대 사원들 본인이 속한 조직이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실현하는가에 따라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함께 자신이 하는일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런점에서 서로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수평적 소통을 통해 수시로 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점에서 ‘함께 하는 경영웃 위원회’가 좋은 계기의 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껏 인식된 공직사회의 수직적이고 권위적 조직문화를 수평적 우호적 소통문화로 혁신하는데 있어 KEPCO E&C 가 그 좋은 모범 잘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경석 사외독자)



• ‘한국전력기술 신입사원을 소개합니다’ 기사가 좋았습니다. 80명의 신입사원들의 열정과 패기를 느낄 수 있었고 특히 “주의를 돌아보며 살자”라는 좌우명과 “회사의 높은 자리까지 오르겠다”는 당찬 포부를 말하는 신입사원의 생각들을 읽으니 한국전력기술을 사랑하는 마음과 소외된 이웃을 돌보려는 봉사 정신이 가득하였습니다. 이들이 있어 한국전력기술의 미래는 무궁무진하게 밝으리라 생각합니다.
(김혜린 사외독자)



• 상주나들이라는 칼럼이 좋았습니다. 아이와 힐링할 수 있는 곳을 찾았는데 이런곳이 있는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멋진 체험장이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도 새로웠고 카페인데도 예술관같은 명주정원도 너무 인상깊었습니다. 푸르른 나뭇잎들이 기다리고 있을 상주로 당장 여행을 떠나봐야겠습니다.
(이경숙 사외독자)



• ‘Culture’의 영화 <인턴>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편안한 노후생활을 즐길 법도 한데 70살의 나이에 시니어 인턴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벤의 모습이 참 멋지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젊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요즘 흔히 말하는 꼰대가 아닌 오랜 경험에서 우러난 배려심 가득한 모습이 저로 하여금 벤과 같은 어른으로 나이 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은미 사외독자)



• 덕산재를 걷는 내 마음, 근대라는 테마로 엮여진 목포 여행기를 읽으니 풍경에 생생하게 눈앞에 그려지는 듯합니다. 목포는 저희 본가에서, 김천은 제 근무지에서 아주 가깝지만 이런 장소들을 찾아보지도 않고, 할게 없다고 징징대며 누워서 빈둥대기만하다가 휴일을 낭비한 제 게으름을 반성하게 됩니다. 다음 휴가에는 목포 여행길에 오르려 합니다. 장소별로 얹힌 이야기를 떠올리는 여행은 즐길거리가 풍성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행장소 소개 코너가 꼭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수연 원자력사업처 사원)